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목 차

I. 교육과정의 이해	4
1. 교육과정의 개념	4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10
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11
4. 2009 개정 교육과정 배경 및 기본 방향	17
II.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21
1. 추구하는 인간상	21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25
III.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27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27
2.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29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33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39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60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60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69
<부록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71
<부록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92
<부록3>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116
<부록4> 초등학교 교육과정 변천	127
참 고 문 헌	174

총 문

김승익(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인영(교 육 과 학 기 술 부)
민용성(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조난심(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백경선(한 국 교 육 과 정 평 가 원)
이승미(인 천 부 내 초 등 학 교)
민부자(서 울 중 미 초 등 학 교)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의 개념은 지식, 인간, 자연, 환경, 문화 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법규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동법 제23조 제2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고시(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화된 계획이 제정,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제1차 교육과정 혹은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정 고시되었다.

우리나라의 법규 문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35호(1945. 4. 20)로 공포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장 총칙의 제2조). 그 이후, 문교부령 제119호(1963. 2. 15.)로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또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¹⁾에서는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1) 한국교육개발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110집, 1979. 12., p. 1.

이 답신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밝혔다.

○ 교육과정에는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7-9호, 1987. 6. 30.)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으로 고시되는 문서는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요강’ 혹은 ‘교육과정 지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위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사고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²⁾ 이러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6차 교육과정³⁾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적 개념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따라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이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은 제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규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paradigm)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⁴⁾ 이러한 교육과

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요구,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교과학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일정한 원리와 절차에 따라 선정·조직하여야 한다.

2)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답신 보고서’, 1986. 6. 30., pp. 84-85.

3)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1992. 9. 30.), 중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1992. 6. 30.), 고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이다.

4)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정의 개념적 입장은 이후 개정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견지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문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에서도 단순히 교육 내용 및 교과서 내용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기본적 질문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가는 실천적 행위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각 학교는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을 기반으로 학교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나. 교육과정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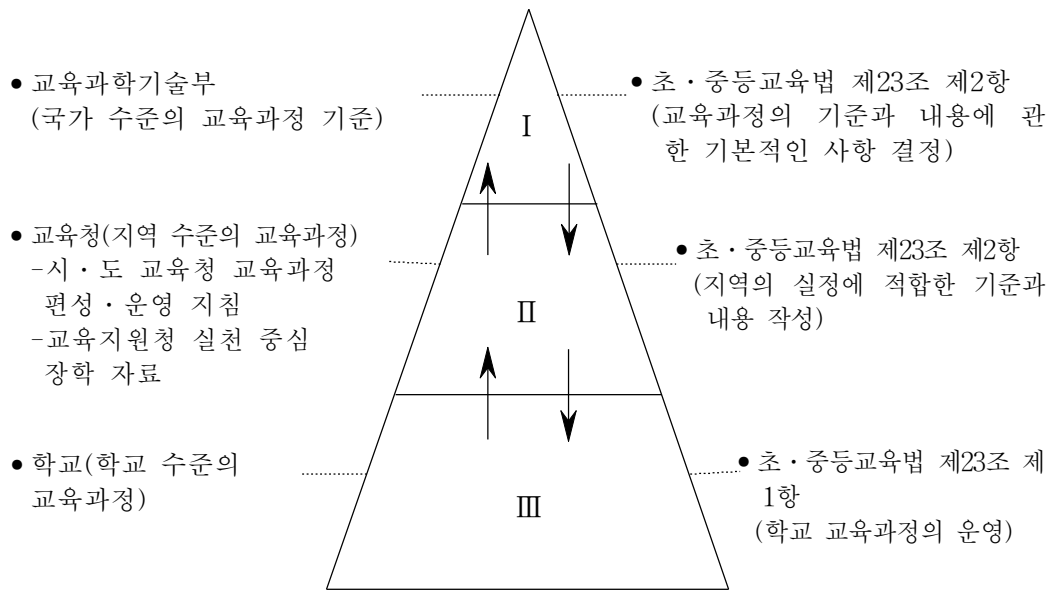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중형의 교육 체제를 갖추어 왔지만 교육의 분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다. 그 결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등의 교육과정 차원이 나타났다. 즉 종래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어 학교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로 규정되었으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나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형성되었다.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 교육과정이 형성된 시발점은 제6차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도모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부가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중점을 반영한 지역 수준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조정한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국가 → 지역 → 단위학교’의 획일적, 지시적, 일방적 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 지역 ⇄ 국가’의 상호 보완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즉, 교육과정 주체인 국가, 지역, 학교, 교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맞게 국가가 의도하고 있는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결정의 주체에 따른 각 수준은 [그림 I-1]과 같이 제

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알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시할 수 있다.



[그림 I-1]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그림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수준에는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I)’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지역 수준 교육과정(II)’과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창출한 ‘학교 교육과정(III)’이 있다. 특히 (I)과 (II)는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1)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⁵⁾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초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문서로 결정, 고시되는 기준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간주되는 이유의 하나로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이 ‘○○○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를 들 수 있다. 고시 문서의 명칭으로 제시된 ‘교육과정’은 다른 나라의 사례⁶⁾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국가 교

5)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917호, 1997. 12. 13. 제정·공포, 일부 개정 2008. 3. 21) 제23조 제2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6) 이 같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Curriculum Guideline’, 혹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Guide’, ‘Minimum Standards’ 등의 용어를 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의 명칭이지 그 자체가 ‘교육과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게 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준거로 삼게 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으로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즉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지원적 관여를 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으로, 타이완에서는 ‘과정 표준(課程標準)’, 프랑스에서는 ‘programmes et instructions’, 영국은 ‘National Curriculu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종래의 경우 교사의 역할은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수(teaching)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가 제창되고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교사의 역할이 종래와 같이 교육과정 실행자 및 사용자, 교수자로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결정자로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자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자이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 과제가 되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원·학생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설비, 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을 치밀하게 반영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운영 방식으로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창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학교 및 교사는 자신들의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반영하면서 학교의 특성 및 실정, 학생 및 학부모 요구, 지역 사회의 특성 및 요구 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창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스스로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을 고양시키고 자신이 속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각 학교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교 자율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학교 자율성의 확대에 따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행자인 동시에 학생들의 능력과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학교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실천가임과 동시에 개발자 및 결정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은 크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각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가.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명시되어 있다.

다. 초·중등교육법

①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임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②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는 초등학교의 기본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③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는 학교의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그 밖에 학교의 학기·수업 일수·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 일수), 제46조(학급 편성),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제49조(수업 시각) 등으로 정하고 있다.

④ 학년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부진아 교육, 수업 연한 : 초·중등교육법 제26조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하도록 하되,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28조에는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

정의 신축적 운영 방식 등을 강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39조에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예외적으로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⑦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활동이 권장,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⑧ 평가 및 학교 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5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라. 기타 법령 :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학교보건법, 저작권법, 과학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3.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시기는 일반적으로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및 교수 요목 시기, 그리고 제1차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 시기의 구분은 통상 제1차, 제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면 개정을 할 경우에

만 새로운 차수를 붙여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2월 24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시 개정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는 개정 연도를 밝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기별 주요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1946)

8·15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 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도록 하고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이 때의 임시 교과목 및 교과 시수표는 일제 강점기 말기의 심상소학교의 교과목 및 수업 시수표를 근간으로 개정된 임시 방편의 것이었지만,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등장시킨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가 우리 국사로 대체된 점 등 주로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탈피하고 신생 국가로서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광복 직후 국민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긴급히 결정한 것이어서 이후 수정하여 시달되었는데, 교과 편제에는 습자·도화·요리·재봉 및 실업이 추가되어 시간 배당이 늘었고, 4학년 이상은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남녀별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

나. 교수 요목의 시기(1946~1954)

광복 이후 임시로 교육에 관한 응급조치를 했던 미 군정청 편수국에서는 교수 요목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1946년 9월 1일에는 국민학교 교수 요목을 시달하였다. 이 교수 요목은 정부 수립과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어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이듬해의 ‘교과 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가 편찬되어 사용되었다. 교과별 교수 요목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진술 체제가 교과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회생활과와 같이 교과목의 목표와 방침, 운용법(운영상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한 교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과가 단원 또는 제재명과 내용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었고, 둘째, 각 교과마다 단원 또는 제재별로 이수할 시간 수를 밝히고 있었다. 셋째, 내용 요소의 진술 형식도 설문 형식, 단순한 내용 요목 제시 형식 등 교과에 따라 달랐으며, 넷째, 교과의 편제는 실과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금과 비슷한 편제를 갖추었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사회생활과’의 탄생이다. 사회생활과는 공민, 역사, 지리, 직업, 자연 관찰(1~3학년)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제된 것이었다. 이과의 1, 2, 3학년에 시간 배당을 하지 않은 대신, 그 내용을 사회생활과에서 ‘자연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별로 연간 38시간씩 이수하도록 하였고, 실과의 내용은 남자의 경우 5, 6학년 사회과와 미술과에서, 여자는 가사과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다.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제1차 교육과정’으로 불린다.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이었으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하는 교과서는 이미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과정 편제에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전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남에 따라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강조하였다.

라.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제1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통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이나 경험 자체를 중시하여 생활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잘 표방하고 있다. 학교급간의 연계성(articulation)과 아울러 교과 간의 통합성(integration)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1, 2학년에서 각 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통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① 교과 활동, ② 반공·도덕 생활, ③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과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의 8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사회 생활과’가 ‘사회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이거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1, 2학년의 학습 지도는 1차와 마찬가지로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도’를 강조하였다. 1969년 부분 개정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을 강화하고 특별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 활동의 변화로는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의 실시를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술과에서 표준색을 종래의 12색(또는 24색)에서 10색(또는 20색)으로 하였다. 반공·도덕 생활은 시간 배당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였고, 특별 활동 구성 체계를 보완하여 ① 학급회 활동, ② 아동회 활동, ③ 클럽 활동의 세 영역에 따라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시간에 대한 백분율(각 학년별로 5~10%)로 제시되었던 시간 배당 기준을 1~2시간으로 표시하여 최소 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마.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들였으며 1968년에 주체성을 강조하여 국민 교육 헌장이 제정·공포되었다. 교육과정 체제 면에서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고, 교육과정의 편제면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교과는 총 9개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유지하되, 5·6학년에서 국사 부분의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면에서는 기존의 과정과는 달리, 교과별·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단, 괄호 안에 주당 시간 표시)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교육 내용에서 국민학교 1학년 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을 탈피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 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아동회 활동, 학교 행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바.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80년대 정치, 사회적 특수성과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의 형태’를 도입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단일 교육 사조나 교육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시간 배당은 통합 교과서에 의한 교과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1, 2학년의 교과 활동 시간을 2~3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이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시간을 학년별·교과별로 표시하고, ()안에 주당 평균 시간을 표시하였는데, 교과 활동 총 이수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기초적인 언어 기능의 강화를 위해 1, 2, 3학년의 국어 시간을 늘리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강조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교과 활동은 교과 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1, 2학년은 교과 간의 통합을, 3학년 이상은 분과를 원칙으로 배당되었으며, 특별 활동 시간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특히, 1, 2학년에서의 교과 간의 통합 시간 배당은 실제 운영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탄생시켜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교과의 길을 열었다.

사.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단일한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① 기초 교육의 충실,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편제와 시간 배당에 있어서는 1, 2학년에 있어서 통합 교과 신설, 통합 교과서에서 1, 2학년 국어, 산수의 분과 독립, 연간 수업 시간 수의 증가, 주당 수업 시간 수의 합리적 조정 운영, 특별 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수리 기능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 등의 통합 교과를 신설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국어 교과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세 종류로서 언어 기능별로 편찬되어 모두 주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바른 생활’이나 ‘도덕’의 ‘생활의 길잡이’는 도덕적 판단,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철학 교재 또는 생각하는 읽을거리나 자료를 제공해 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산수의 ‘산수 익힘책’은 보충·심화 또는 워크북이나 배움책의 구실을 하며, ‘슬기로운 생활’과 자연의 ‘관찰’, ‘실험·관찰’은 자연 현상의 탐구, 해결을 위한 최저 필수 학습 요소(minimum essential)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또한, ‘1·2학년의 교과 활동의 평가 결과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이원적 구조로 제시하여, 1, 2학년의 교과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아.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국가, 지역, 단위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① 교육과정의 성격, ②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③ 편제, ④ 시간 배당 기준, 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의 교육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이다. 1, 2학년의 교과는 바른 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고,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우리

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재 개발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3~6학년의 교과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하였다. 편제 및 운영상의 특징으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 강화, 저학년 통합 교과의 합리적 조정, 고학년의 수업 시간 감축,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태도 교육 강화,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의 변경 등이었다. 또한 1995년 제6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3·4·5·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의 수업 시간을 배당하여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자.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 교과 중심의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고,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에 과목군 개념을 도입하여 10개의 기본 교과를 5개의 과목군으로 분류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량 활동을 신설, 확대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기본 생활 습관 등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고,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중심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과 편제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간의 교과 수의 격차를 없애고, 교수·학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 4학년은 9개 교과로 편성하였다. 실습 중심의 실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과 시간을 5, 6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교과별 및 영역의 명칭과 편제의 교과 제시 순서를 학년제와 과목군 개념 도입에 따라 ‘자연’과 ‘영어’ 교과는 ‘과학’과 ‘외국어(영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재량 활동을 확대하고, 특별 활동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학급, 학교, 클럽 활동 등 집단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한 것과 달리, 활동내용 중심으로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수시 개정 체제에 의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서는 2006년에 이루어진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2009)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10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2005년 2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되었다. 일시적,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각계 각층의 요구를 탄력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며, ①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교육의 충실, ② 재량 활동의 활성화, ③ 학습 부담의 경감과 교과 편제 구조의 점진적 확대, ④ 교과 학습 내용의 적정화, ⑤ 통합 교과의 견지 및 내실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의 5개 또는 6개 교과를 편성하였다. 3, 4학년은 9개 교과를 편성하였으며 5, 6학년은 실과를 포함하여 국민 공통 기본 10개 교과로 편성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성되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만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 활동도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성격과 목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조직하는 데 필요한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 기준에서는 3, 4, 5, 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는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하여 운영 할 수 있게 하였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 배경 및 기본 방향

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초·중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보다 포괄적이며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서 학교 교육 전반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전후로 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에 걸쳐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을 추진하였다. 2007년 포럼에서는 교육과정 체제 구조 검토 및 개선,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계,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의 과제, 창의력 함양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주요 문제로 다루었다. 2008년 포럼에서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방향 및 편성·운영이 다루어졌으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연계 방안을 다루었고, 향후 교육과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포럼은 교육과정 체제 개편으로서 국민공통교육기간 하향 조정, 교과목 축소, 공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 미래 학교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흥미롭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 제공과 자율권 확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국정 과제로 수행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과정 선진화와 교육과정 설계의 합리화 방안,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정화 방안,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안, 넷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방안, 다섯째,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국가 교육과정 포럼과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를 발판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미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상하면서 ‘글로벌 창의인’⁷⁾을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의 주안점은 교육과정 적합성 제고, 교육과정의 적정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책무성 강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첫째, 과잉 규제 완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둘째,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합리적 범위 설정, 셋째, 학습자, 지식, 사회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적합성 확보, 넷째, 학년군간·학교급간·교과간 계열성과 통합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걸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 하향 조정하고,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였다.
- 2)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이원화하여 체계적인 교과 학습을 비롯하여 보다 풍부하고 활성화된 교과외 활동(범교과적 학습, 봉사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 3) 교과 영역의 편제에서는 교과(군) 접근을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 교과 간에 소통과 통합 지도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년군별 교과 교육과정 기준 제공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단위학교에 교과 및 시간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4) 수업 시수 편성의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소 수업 시수’를 적정하게 설정하되,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년별·교과별 세분에 의한 구체성,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생 집단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수업 시수를 융통성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계발을 증진하고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3년으로 확대하고,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6) 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고, 학습 에너지의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며, 교수·학습 활동 여건 대비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과별 최소 필수(minimum essential) 학습 내용을 정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과간·활동 영역간 과다 중복 또는 과도한 반복을 해소하고, 교과 내용과 ‘범교과 학습’ 주제의 중복을 해소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수준을 고려하여, 9학년말

7)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인재의 육성을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능력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미래형 교육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국가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2008. 10. 29. 자료).

능력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역량을 충분히 발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무한히 성장	고정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

까지 갖추어야 할 공통 기본 소양과 10~12학년에서의 심화 소양을 위한 내용 수준과 범위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목) 개설에서의 이수 방식을 고려하고,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편제)에 대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하향 조정한다. 둘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교과외 활동으로 재편하여, 글로벌 창의인이 구비해야 할 핵심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 무학년제와 교과 교실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교과(군)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재정비하며, 학교 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 교과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총론에서 교과별 기준 개발을 위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개발하되 합의 가능한 교과부터 먼저 수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결손학생의 보정교육을 위해 일부 학년 아동은 학년초에 교과학습진단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를 실시한다.

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학습과 전인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제 구조 개선을 위해 ‘학년군’, ‘교과군’ 접근을 시도하였다. 학년군 접근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학년별·학기별·분기별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줄일 수 있다.⁸⁾ 교과군 접근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정에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당 10개 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학습 부담이 과중하며, 학습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학년 매 학기에 모든 교과목을 편성해 온데서 벗어나 주당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를 통하여 학습 부담을

8) 외국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학년과 교과 시수 제시 방식 등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필요, 요구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년군 운영 사례로서 프랑스는 1-2학년/3-5학년, 영국은 1-2학년/3-6학년/7-9학년/10-11학년, 싱가포르의 1-2학년/3-6학년, 미국 루지애나주는 1-3학년/4-6학년/7-8학년, 대만과 중국은 학년별 접근과 함께 교과(군)별 학습 단계를 다양한 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정화하는 동시에 학습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3)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자기주도적학습, 범교과 학습)과 교과 재량활동으로 구성되고 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지나치게 세분되고 상호 중복되며, 국가·사회적 요구가 우선되는 등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개편하여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의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는 주당 최소 3시간, 중학교는 주당 최소 3시간, 고등학교에서는 주당 최소 4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4)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지역, 학교, 학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 제도상으로 단위학교의 실정과 요구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아울러 학습 부진이 심한 교과목에 대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우며, 학생의 적성과 진로, 능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 제시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 20%범위 내 시수 증감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 학교, 학습자의 수준 및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II.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초·중등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서 인간상을 제시해 왔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등을 강조하여 인간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는 교육기본법(제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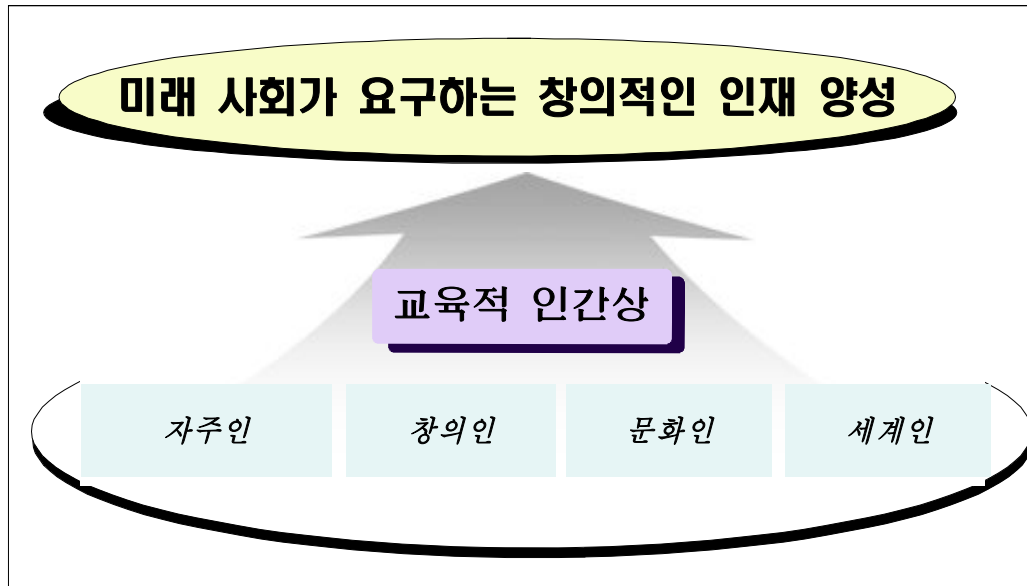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진술문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주인 (self-directed person)	창의인 (creative person)	문화인 (cultivated person)	세계인 (global-minded person)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독 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 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의사소통능력, 세계 시민 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인류공영, 배려와 나눔 등



이상과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세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를 개척하고 국가와 지구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본보통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전인(全人)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몸과 마음, 곧 지(智)·덕(德)·체(體)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인적 성장은 평균적인 인간의 육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가진 개성을 찾고, 발달시키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을 두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변화 등이 바로 이러한 개성의 신장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곧 학교 교육을 통한 전인적 성장과 개성의 발달을 토대로 학생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로 요약되는 미래사회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창의성 구성요소에서 보듯

이, 창의성은 단지 우연적인 독창적 사고만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구되는 맥락에 알맞게 구현할 수 있는 정교성과 비판적 사고력 등이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기초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상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하였다.

창의적 인재의 특성이 무엇인가는 수많은 학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의미를 토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영국의 창의·문화교육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s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NACCCE)는 창의성을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산출물들을 생산해 내기 위한 상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조건이 제공되고 관련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몇몇 활동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을 추구하는 것과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철(2006)은 창의성이란 ‘인간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문화 특성이나 문명 이기를 창출해 내고자 자연 현상이나 삶의 세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하거나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가치 있는 지적, 과학적, 문화적 아이디어와 산출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Guilford(1967)에 의하면, 특히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하위 요소-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가 갖는 주요 특성 때문이다. 최근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확산적 사고, 논리적·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과 함께 창의적 성향까지를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

<표 II-1>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

구분		
창의적 사고 능력	확산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독창성
	논리적, 비판적 사고	정교성
		비판 및 평가
		논리, 추론
		분석
창의적 성향	개방성	
	과제 집착력/집중력	
	호기심	

	자발성
	자기신뢰감
	민감성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각자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향유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의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 밑바탕에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되어 가면서 미래의 교육에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와 편견의 극복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개개인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적 감수성을 길러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때에 국가 전체의 품격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무엇보다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과 같은 역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나라 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각종 수출입품의 활용, 심지어 유행성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이러한 세계의 추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당당하게 누림과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점차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되면, 이러한 지구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위와 같이 설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기존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과 비교할 때 큰 흐름은 유지하되 좀 더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제의 구성 방침을 제시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구성은 앞에서 제시한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교육과정 총론은 물론이고 이에 따라 개선하게 될 교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제 구조상의 변화로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의 이원적 구성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기간을 축소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관련 용어를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료하게 함과 아울러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 구조의 개선]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 선택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 공통 교육과정: 1~9학년 • 선택 교육과정: 10~12학년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과 교과군을 설정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초·중·고교 12년의 교육기간을 5개 학년군(1~2, 3~4, 5~6, 7~9, 10~12학년)으로 설정하여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화,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10개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공통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설정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다양성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넷째,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 교과목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군)별 및 교과 영역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과(군)별 집중 이수를 통하여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

일곱째,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할 학교 교육과정 평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 평가의 개선, 그리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 제시함으로써 본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평가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하였다.

Ⅲ.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교과 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이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초·중등교육법의 각급 학교 ‘교육 목적’을 반영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상을 설정하는 저변에 놓인 자원들이 교육 목표 설정의 자원이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의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 목적이 학교급별로 제시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교육 목표도 학교급별로 구분된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 목표의 진술도 교육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 그들의 성장과 진보의 정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함으로써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정의 취지가 반영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급별 목표 설정의 방향을 구상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일관되고, 그것을 학교급별 교육 수준에 맞추어 구체화하여 목표를 진술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유지되어 온 학교급별 목표 진술의 틀을 유지한다.

셋째,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의 내용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 목표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는 <표 III-1>과 같이 4가지 인간상을 각 학교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반면에, 각 학교급별로 제시된 총괄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표 III-1> 교육적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 목표와의 연계

인간상	초등학교 교육 목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첫째,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자주인)’과 관련한 목표는 심신이 건강하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업 및 직업 진로를 탐색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창의인)’과 관련한 목표는 학생이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서 기초·기본 능력을 배양하여 앞으로 직면하게 될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문화인)’과 관련한 목표는 학생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과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풍부하게 경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넷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세계인)’과 관련한 목표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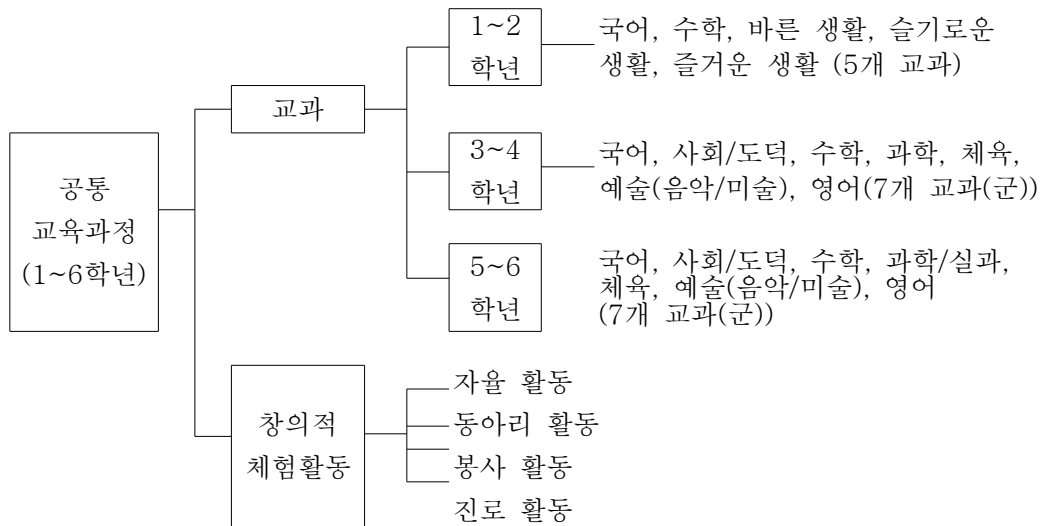
2.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I-1]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일부 교과를 교육 목적이나 학문의 성격에 따라 ‘교과군’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예로는 사회/도덕 교과군, 과학/실과 교과군, 예술(음악/미술)이 있다. 또한, 학년 운영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각각의 독립된 6개 학년으로 분리하지 않고,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2개 학년씩 묶어 운영하는 ‘학년군’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군’ 접근은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정에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교과 간 소통을 촉진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있게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년군’ 접근은 학년 간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행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관행을 개선하고,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 있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나타나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교과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교과군’은 기존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개 교과를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한 것이다.

이전 10개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		↓			↓			↓		
개선 7개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 교과군 접근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간 및 활동 간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해소와 재구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학습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교과군 내 혹은 교과군 간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과별 수업 시수를 조정하거나 수업 시수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 교과군 접근은 기존 교과의 운용 방안을 벗어나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연속 수업(block time)을 통해 집중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토론과 발표, 실험과 같은 탐구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다.

둘째, ‘학년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학년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한다.
- 초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담임 연임제를 실시할 경우,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습을 비롯하여 제반 영역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
- 학년군 편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를 학년별·학기별·분기별 집중 이수를 하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학교급 간 연계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1~9학년, 7~12학년제 학교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학교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총괄목표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전인적 성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화하되, 재량활동에 편성하던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운영 방안은 학교에 일임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나.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 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로운 생활 192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수업은 ‘시수제’로 운영되며,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및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업 시간을 재구성하거나 블록 타임제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있게 구성할 수 있다.

둘째,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수업 시수는 기존 교육과정의 최소 수업 시수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기존 교육과정에서 교과 및 학년별 수업 시수와 연간 총 수업시간 수는 모두 최소 수업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과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의 개념적 의미가 다르므로 시간 배당 기준을 이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각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의미하지만,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다. 예컨대 종전에 3학년 국어 교과의 238시간, 3학년 연간 총 수업 시간 수인 952시간은 각각 연간 최소 수업을 나타낸 것이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국어 408시간은 일정 범위 내 증감이 가능한 기준 수업 시수이며,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인 1,972시간은 최소 수업 시수인 것이다.

즉,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이상 이수해야 하며, 수업시수 확보는 계획과 실적이 일치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기준 수업 시수’는 학년군별로 운영해야 할 각 교과(군)의 연간 시수로, 이 시수를 기준으로 학생의 요구, 지역 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수업 시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 수업 시수’의 제시는 단위학교에서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범위 내 증감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저가 되고 있다.

셋째, 3~4학년에 배당된 국어 교과의 수업 시수는 408시간이다. 이 수업 시수는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 배당을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3학년의 국어과 교육과정 운영 기준수업시수를 204시간으로 하고 학교실정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재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나, 기준수업시수를 238시간으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적정하게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3~4학년 국어의 경우에만 기준 수업 시수가 408시간 또는 442시간이 된다.

넷째, 교과(군)의 설정으로 과학/실과 교과군이 제시되었는데, 3~4학년군에서는 과학을, 5~6학년군에서는 과학/실과 교과군을 지도하게 된다. 즉, 5~6학년군의 340시간에는 실과의 수업 시수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의 학생들에게 실습 노작을 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교과군 운영 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수를 고려하여 시간 배당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1~2학년군에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수 272시간에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으로 1학년 학생들에게 지도하던 ‘우리들은 1학년’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하여 3월 한 달 간 ‘우리들은 1학년’ 교과를 80시간 운영하였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별도의 교과를 두지 않고, 학생의 요구,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적정 시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 편제에는 교과 영역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가 제시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들은 1학년’ 교과 자체가 새로운 환경에의 원만한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데, 취학전 교육 기관 및 교육 기회의 확대에 의해 특정 교과로 제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또는 개별 학습자에 따라 취학전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 특성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운영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에 입문하는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출발점을 같게 하여 이후의 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기존의 80시간으로 고정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당 기준에 별도의 시수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가용 시간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단위학교는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과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필요 및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은 자율활동 영역의 첫 번째 주제인 ‘(1) 적응 활동 - 입학, 진급, 전학 등에 따른 학교 적응 활동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 능력 및 창의성 등과 같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하도록 구체적인 체험과 실천을 통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형성을 위한 반복적, 지속적 교육이 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 및 사회와 연계되도록 적절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험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 교육에 기초하여 학생 상호 간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개인은 독자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일원, 지역 사회의 일원, 국가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각 수준의 공동체가 원활하게 제 역할을 다하려면 각각의 구성원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돕는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성장이 왕성한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에 대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 단계의 교과 측면에서 ‘기초’란 읽기, 쓰기, 셈하기 등과 같이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위하여 학습의 초기 또는 이전 단계에 습득이 요구되는 밑바탕을 말하며, ‘기본’이란 각 학년 내에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내용 수준의 성취 기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 9년간의 공통 교육과정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동일 기간에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제에서 교과는 개별 학문의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초등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각 교과와 학문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을 정선하여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각 교과와 학문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후의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고차원적인 학문도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고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교육의 시작이 되는 초등교육에서 학생들이 각 교과와 학문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 중점을 설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생의 한글 학습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많다. 학부모가 가진 초등학교 한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학교와 담임교사는 입학생들의 한글교육 시 개인별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여 기초부터 하나 하나 가르쳐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한글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저학년부터 우리말,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단위 학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통합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유능한 담임교사 배치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학습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 기초적인 수리력 향상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수리력은 사회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 중 하나로,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초등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교육에서 삶의 기초 능력을 확립시켜 주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 각 교과목의 기초적·기본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이후의 학습에 있어 결손이 누적되어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고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후에 학습의 결손 부분을 메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단위학교에서는 별도의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의 기초·기본 학습 능력 제고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교과별 수업 시수를 연간 최소 시수로 설정하여 왔다. 그런데 연간 최소 시수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최소 시수 위주로 이수하면 된다고 해석되는 등 학교교육의 성과관리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최소 수업 시수’에서 벗어나 필요시 증감이 가능한 ‘기준 수업 시수’로 전환하였으며,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자율적 증감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제로 부과하던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다룰 수 있다. 또한 민원사항이나 실태조사(진단평가)결과 학생들이 학습의 곤란을 느끼는 단원을 검토하여 충분한 이해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당 교과(군)의 시수를 증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 증감의 범위는 <표 III-2>와 같다⁹⁾. 그런데, 각 교과(군)의 시수를 증감하더라도,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수는 최소 이수 시간수로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시수 증감은 교과(군)의 시수에 한정된 것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 교과(군)별 수업 시수 증감의 범위에서 각 교과(군)별 최저 시수는 (기준 시수 × 0.8)로 계산한 값의 소숫점 이하는 올림하고, 각 교과(군)별 최고 시수는 (기준 시수 × 1.2)로 계산한 값의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도출하였다.

<표 III-2> 초등학교 교과(군) 수업 시수의 증감 범위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기준	증감범위	기준	증감범위	기준	증감범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359 ~ 537	408	327 ~ 489	408	327 ~ 489	
	사회/도덕	수 학 256	205 ~ 307	272	218 ~ 326	272	218 ~ 326	
	수학			272	218 ~ 326	272	218 ~ 326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103 ~ 153	204	164 ~ 244	340	272 ~ 408	
	체육	즐거워 운 생활 192	154 ~ 230	204	164 ~ 244	204	164 ~ 244	
	예술(음악/미술)	즐거워 운 생활 384	308 ~ 460	272	218 ~ 326	272	218 ~ 326	
	영어			136	109 ~ 163	204	164 ~ 24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한 학기당 10개 교과를 학습하는 다교과 분산 이수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과중과 흥미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의 이수 시기를 특정 학년, 학기에 집중 편성·운영을 허용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여 학기당, 주당, 일당 이수 교과 수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집중 이수를 통한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실태파악과 논의를 통해 교과 집중 이수 실시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 집중 이수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시 각 교과(군)별로 계절적 특성 등이 나타나는 교육 내용이나 학습 소재 등에 유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학교에 따라서 관련 교과(군)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거나 관련 교과(군) 시간

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모두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범교과 학습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초등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이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각 관련 교과 및 배려와 나눔의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과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학교에서는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을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의 여건, 학생의 수준, 학교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정 학년(군)에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년군, 교과군 및 교과 집중 이수제의 도입에 따라 교과목의 이수 시기, 학년이나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의 분량이나 내용 등이 학교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전입 학생들이 교과 미이수나 중복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고려하여 전출 학교의 교육과정과 전입 학교의 교육과정 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과 미이수나 중복 이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관할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 집중 이수로 인해 해당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방송이나 전자학습(e-learning),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보충 학습 과정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시간에 제공하며,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 등을 확인하여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전학 등으로 교과 중복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이수 교과를 면제하고 다른 교과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2개 학년을 묶어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복식학급의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년 간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복식학급으로 묶여진 학년 간에 교육 내용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통의 주제나 공동의 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제 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는 교재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식 학급의 편성·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재구성,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지원청, 교과 연구회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서는 교과목의 수업시수를 교과(군)별, 학년군별로 제시하였으며,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의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교과목의 이수 시기, 학년이나 학기당 이수하는 교과목의 분량이나 내용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문서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이를 안내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 계획 설계를 돕고, 전학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을 도입함에 따라 음악, 미술 교과를 교과군으로 제시하면서 그 명칭을 ‘예술(음악/미술)’로 하여 두 교과 간 관련성과 지향점을 ‘예술’에서 찾도록 하였다. 비록 음악과 미술이 모든 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초등학교 예술 교과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는 음악과 미술 교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두 교과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통해 예술 교육의 지향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예술교육 운영은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 교과전용교실에서 악기나 각종 교구를 사용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학생 주도의 직접 체험형으로 진행할 때 학생의 소질 개발 등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장학담당자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야 할 교사의 소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교사 능력별 필요에 따른 예술분야 연수가 학교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예술 교과 내용의 연습 및 과제 등 학습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원칙

-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바탕으로 편성·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및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을 승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에서 구체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이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 있어, 각 학교가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되어 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위주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 실천가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한 실

행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학습자를 철저히 맞추어 가는 교과서 중심 체제와는 달리 학습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 중심·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가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학교와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이 교과서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와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의 주체가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원의 연구와 노력으로 편성한 산출물이 바로 학교 교육과정인 것이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 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에 자율권과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침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색 없이 경직화,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학교 교육 목표, 당해연도 교육의 중점이 드러나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구성 체제를 예시하면 <표 III-3>, <표 III-4>와 같다.

<표 III-3>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예시1)

I.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 1. 국가 및 시·도 교육의 방향 2.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 3.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4.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II. 학교 교육 목표 1. 학교 교육 목표 2. 교육 목표 구현 중점 3. 구현 중점별 세부 추진 계획 4. 특색 사업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1. 기본 방침 2.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입학연도별) 3.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확보 계획 IV.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1. 교과 2. 창의적 체험활동	V.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1. 교직원 조직 및 연수 계획 2. 자율 장학 추진 계획 3. 독서 지도 계획 4. 생활 지도 계획 5.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6.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계획 7. 각종 위원회 운영 계획 8. 계획별 목표 등 성과 관리 9. 예산 운영 계획 10. 기타 VI.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1. 학생 평가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부록> 1. 학교 연혁 2. 학사 일정 3. 교직원 일람 4. 교사별 교과 담당 시간 5. 업무 분장표 6. 교사 배치도 7. 각종 규정 8. 기타
---	--

<표 III-4>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예시2)

I.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 1.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 가. 성격 나. 추구하는 인간상 다. 국가 및 시·도 교육의 방향 라.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마.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 바. 본교 교육의 방향 2. 학교 실태 분석 가. 학교 현황 나.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다. 금학년도 기초자료 분석 라. 본교의 특성 및 시사점 마. 학교 발전 계획 II. 학교 교육 목표 설정 1. 본교 교육 목표 2. 교육 목표 구현 계획 3. 특색 교육 4. 과제별 추진 계획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침 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2. 편제 및 시간 배당 3.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침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침	IV.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과 교육과정 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V.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2. 학교 경영 평가 VI.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활동 1. 학교 경영 조직 2. 각종 위원회(협의회) 조직 운영 3. 수행 평가 실시 계획 4. 학습 및 기초 학력 부진 학생 지도 대책 5.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6. 특별실 운영 계획 7. 계획별 목표 등 성과 관리 8. 예산 및 재정 지원 계획 9. 기타 <부 록> 1. ○○○○학년도 학사 일정 2. 교무 활동 부서별 운영 계획 3. 중장기 발전 계획 4. 각종 설문지
---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① 준비 단계, ② 편성 단계, ③ 운영 단계, ④ 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 단계	1.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운영 - 관련 규정 검토, 역할 구체화, 조직하기, 운영하기
	↓
	2. 기초 조사 - 관련 규정 검토 분석 - 계획 수립, 조사 실시, 결과 분석, 시사점 반영
↓	
② 편성 단계	3. 편성 계획 ○ 구성 체제 결정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향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도 -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 편성 절차 - 기본 원칙 설정 - 편성 시 결정 사항 - 편성 절차
	↓
	4. 기본 방향 설정 - 학교장 경영 의지 - 학교 교육 목표 - 교육 중점 과제 - 노력 중점(학교 특성화 사업) - 중장기 발전 계획
	↓
	5.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 편제와 시간 배당 - 학년군, 교과(군) 활동 편성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계획 - 교육과정 지원 계획
	↓
	6. 시안 검토, 심의 확정 - 시안 검토 - 시안 심의 및 확정
↓	
③ 운영 단계	7. 교과 운영

	- 교과(군) 수업 시수 증감 운영 - 교과 집중 이수제 - 블록타임제(Block Time) 운영 - 수준별 수업 - 창의·인성 교육 강화 운영
	⇩
	8.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및 목표, 유의점 파악 - 내용 및 운영 방법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사례 파악 활용
	⇩
	9. 범교과 학습 운영 - 범교과 학습 운영 방법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제 -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과정 반영 계획
④ 평가 단계	⇩
	10. 운영 관련 기타 사항 - 특별 보충 수업 - 귀국자,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녹색성장 교육 및 경제교육 - 인적·물적 자원 활용 - 돌봄 교실 운영 - 교육과정 변경 운영 -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실적점검
	⇩
	11.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 학업성취도 평가 - 교과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학교 교육과정 평가 - 학교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 학교 교육과정 기본 계획 - 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자체 점검 체제 - 계획별 성과 관리 활동 ○ 학년(군) 및 학급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지원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그림 III-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절차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학년(군) 및 교과(군)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작업 시에 판단하거나 선택, 결정할 사항 중 비교적 공통적·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 목표의 결정

- 교육 가치성, 실천 가능성,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교과 목표, 학년 목표, 영역별 활동 목표 등의 하위 목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상위 목표를 설정한다.

② 교과별 학년 목표의 결정

- 국가 수준 기준에는 교과별 학년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학습자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년 목표를 결정한다.
- 학년 목표의 수준, 목표 수, 설정 영역 등은 그 학교의 학생에 적합하게 결정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별 목표를 근거로 구체화, 상세화 한다.

③ 교과별, 학년별 교육 내용의 결정

-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영역별·학년별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보완한다.
- 교육 내용을 상세화, 간략화, 중점화, 특성화, 통합화 한다.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고려 사항

-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관련 법령,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침, 학교의 여건, 교사의 실태 및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강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든 교원이 전문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최선으로 구현하기 위해 운영상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편성 작업, 심의·검토, 수정·보완, 확정 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

점을 수시로 점검하는 책무성을 발휘하면서 교원이 운영계획 아래서 전문적으로 수업시간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장학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포함된다. 교원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경우에 학생 실태와 학부모 요구에 비추어 재구성·조정·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난이도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지도 순서·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행사와 연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시설·설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① 교육 내용별 소재의 결정

- 교육 내용별로 지역과 학교에 적절한 수업 소재를 선택·결정한다.
- 소재 선정 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부터 우선한다.

② 교육 방법의 결정

- 교사가 수업 전문성을 발휘한 주도적인 강의, 해설, 설명을 비롯하여 팀티칭, 협동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
- 학생의 직접 체험 활동, 소그룹별 공동 과제 해결 활동, 개별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택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학습 시간의 결정

-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 특성, 학습 형태와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배당한다.
-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차에 따른 소집단별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

④ 학습 시기의 결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를 고려하되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 특히, 계절, 기후, 세시 풍속, 국가 및 지역의 행사, 환경, 생태계, 각종 역사적,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은 최적의 시기에 학습 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⑤ 학습 형태 및 학습 조직의 결정

- 학습 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선택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합, 조직한다.
-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결정한다.

⑥ 학습 매체의 결정

- 학습 매체는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사용, 학생용을 모두 포함하여 선택·결정한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습매체와 장학자료를 적극 사용한다.
- 교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고려하고, 견학, 방문, 실습과 자원 인사 초빙도 학습 매체 선정 시 계획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외부 자료 사용의 경우 교육청의 지도협의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⑦ 평가 계획의 결정

- 평가 도구와 평가(자체 점검 등 포함) 방법, 평가 시기, 보고 및 공개방법 등을 결정한다.
- 선택형, 서술형 등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창의·인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정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셋째,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견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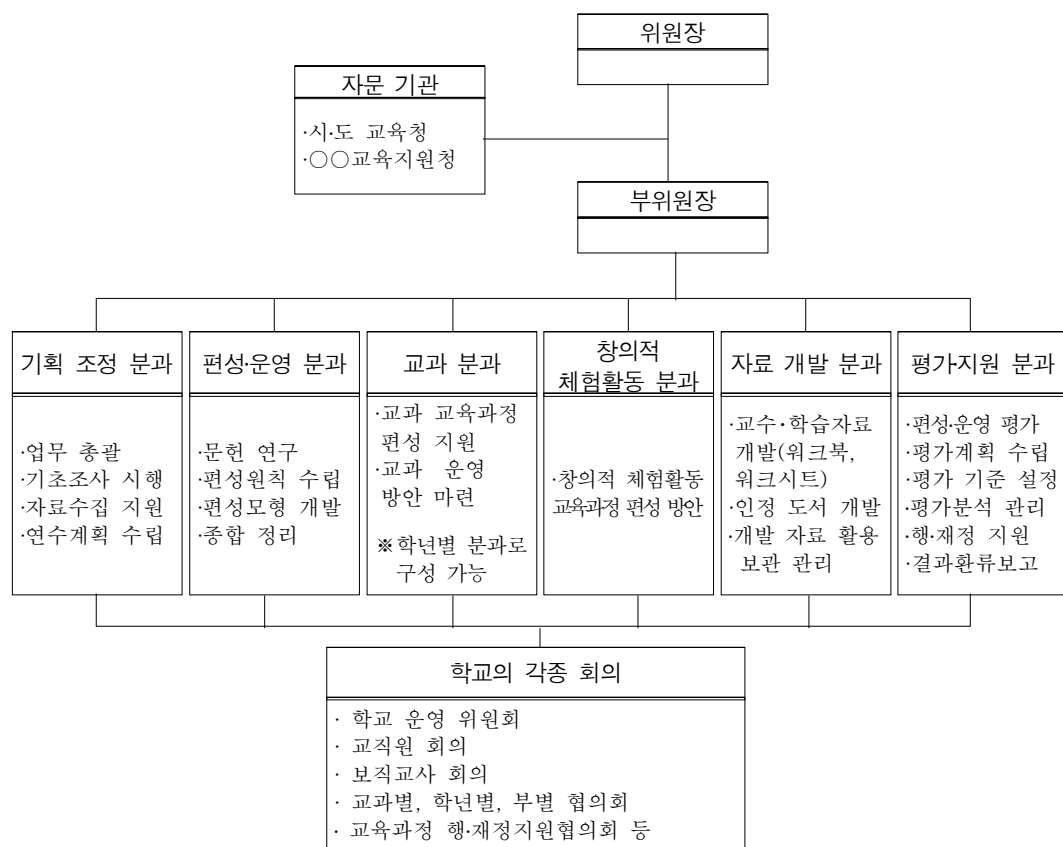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 동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과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 위원회’에 기획 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재 개발 분과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의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여기서 학부모와 학생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교육수요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협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 위원회 및 장학 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도 있다.

다음은 분과별 역할 분담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예시한 것이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과 평가 등

(4) 효율적 교육 활동을 위한 노력

-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조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효율적 교육 활동 전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공유,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수 자료의 공동 제작 등을 위하여 동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휴업일 기간에 교육과정을 심층 연구토록 하여 충실한 학기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교사의 경우 다교과를 담당하면서 나타나는 교과 및 영역별 능력개발요소를 파악하여 학교가 계획적으로 능력개발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의 교육 내용은 각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정선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 배열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

념과 아이디어, 지식, 원리, 기능, 가치 규범, 주제, 제재, 소재를 보다 더 상세화한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징의 폭과 깊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교과 목표와 내용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는 차시별 수업이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장학컨설팅을 실시한다.

셋째, 초등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이자 공통 교육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별 학습 목표는 해당 학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교과의 교수·학습에서 학습 결손의 누적과 학습 의욕 저하를 예방함과 동시에,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탐구하는 과정, 탐구하는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율적인 학습’, ‘창의·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넷째, 각 교과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개념 및 원리가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탐구 활동 속에서 성취되도록 교수·학습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협동심, 공동체 의식 등 정의적 측면의 교육은 특정 교과의 의도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도 육성되는 것이다. 즉, 주입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는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참여하는 모든 교과와 모든 영역에서 교사는 공동 학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공동 과제를 통한 소집단 활동은 학생 주도적 수업이다. 교사 주도의 수업보다 철저한 사전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고 교사 상호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공동 학습 활동은 교사 상호 간의 협동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보를 교환하고 협동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교과·영역의 학습을 통해 가르고자 하는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별과제이든 공동과제이든 단위학교는 가정학습 과제의 부과에 있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학년별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분량과 내용의 과제를 선별하여 계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제 학습의 교육적 성과와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습자마다 상이한 선행 학습의 정도, 현재 지식수준, 배경환경, 학습 선호도 등에 따라 학습자에게 서로 다른 학습의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의 개별화이다.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맞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 학생 실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과 직접적인 체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음악시간은 음악실에서 각 악기의 실음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특히,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팀프로젝트나 발표·토의 학습을 통해 학생간 또는 교사와의 인간적 관계를 증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창의적 문제 탐색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노력한다. 실험 단원은 과학실운영계획에 의거 과학실에서 실험수업을 하며, 교육활동에서 실험·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 직접적 체험 활동 중심의 학습과 함께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 및 교과 외 활동 전반은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해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도록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덟째, 과학 실험이나 실습을 주로 하는 교과목의 실기 지도, 체육 및 예술 교과목의 실기 지도에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학교위기관리차원에서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실습 전·중·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실험·실습실에 필요한 안전 용구를 구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용 방법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수준별 수업

-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서의 개인차를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운영 시 학급 내 학습 집단 편성을 비롯하여,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와 특성, 활동 주제의 성격, 학생의 개인차 등에 대한 교사의 판단에 따라 단일 활동 일제 수업, 단일 활동의 수준별 수업, 복수 활동 수업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 학습 집단 편성 및 수업 방법은 교과, 활동 주제, 학생의 개인차,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학년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 ① 학습자의 능력, 흥미, 인지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과 학습 활동을 구안한다.
- ②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다양한 수준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 ③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는 성취 수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 어휘, 언어 형식 등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한다.
- ④ 개인별, 소집단 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간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⑤ 심화 학습에서는 확장된 교재를 이용하여 개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협동 학습을 권장하고, 보충 학습에서는 학습 결손 요인을 파악하여 기본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한다.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분단 편성 : 학급 내에서 능력, 흥미, 학습 속도를 고려한 수준별 분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 ② 다양한 집단혼용
 - 학급 내에서 협동 학습 집단과 수준별 집단을 동시에 운영
 - 중·상위 학생은 협동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인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며, 수준별 동질 집단인 하위 집단은 교사의 지도를 통하여 보충 학습을 운영하는 방안
- (6)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활동

-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와 학습자의 요구가 다양한 시대에는 학교가 가진 자원만으로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역 사회가

학교 교육을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교육 자원의 보고라는 인식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한 영역이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해 실생활 중심,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의 교사와 시설만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활용하고,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으로는 대학, 관공서, 사회복지 단체, 문화원, 지방 자치 정부 기관, 박물관, 인근 학교, 지역 사회 학교, 기업체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시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갖추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여 이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 보조자 등의 인적 자원과 제반 시설, 설비, 자료 등의 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

(7)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영역과 활동 내용은 권고적인 성격의 것이다. 학교에서는 그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더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선택·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영역별로 학생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

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배당된 시간은 기준 시간으로 학교의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 집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시간 운영의 방법은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자율 활동의 국토 순례 활동, 봉사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은 활동의 특성에 따라 방학 기간(해당학교의 경우 수업일수 반영 검토 가능)을 이용하여 집중 운영할 수도 있다.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고, 그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의 순서, 비중 및 방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에서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8)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학습 지체 및 발달 지체 등 심신 장애 학생들은 해당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신 장애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 개인에게 알맞은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 학기마다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지구별로 학습부진아, 심신 장애 특수 교육 대상자,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즉, 단위학교가 수준별 수업의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만약 학습 부진아,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

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교과목의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귀국 후 나타날 수 있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주어 국내 학교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적 학사관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신장시키며, 외국에서 얻은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9) 범교과 학습 및 계기 교육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범교과 학습 활동은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위 지침 (22)항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 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교육 시책, 자기 발전 계획상의 사업, 국가 시책·중점 사업 등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환경, 교통, 절약, 안전, 질서·준법, 경로 효친, 예절 등과 같이 국가·지역·시대·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범교과적인 학습 내용은 회의 자료나 장학 계획, 협의회, 공문 지시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

년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계기 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의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기 교육의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만들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상위 기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 교수·학습 자료 사용 및 교과 교실제 운영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5) 각 교과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학습 자료, 학습 부진아 학습 자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의 공동 개발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별 장학 협의회, 교과 교육 연구회 등을 통한 지역의 자원 인사나 교원,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 우수 사례 또는 각종 교육 자료전이나 경진대회에 출품된 우수 교수·학습 자료를 공개하고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와 교사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한 장학 자료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청(정부)이 지원한 자료나 웹사이트의 우선 사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원칙적으로 권장한다. 학교와 교원은 각 자료의 장·단점이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자의 의견 등 실증적 근거를 참고하거나, 특별한 경우 계기교육지침 등에 의거 장학담당자가 내용을 검증하는 등 종합적 검토와 장학컨설팅 활동을 통해 사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는 각 교과에 교수·학습 자료가 ‘서책’에 머무르지 않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의 형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교과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학생용 자료인 교과서만이 아니라, 워크북, 워크 시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의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될 것이다. ‘교과서’의 사용과 함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자료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활발한 인간적 상호작용, 학생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참여, 학생의 능력개발과 창의성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방법들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재연구 결과에 따른 멀티미디어 콘텐츠 투입은 전체 수업의 흐름 속에서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순기능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형 학습자의 개별화된 교육과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각 교과에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시설 및 기자재를 구비한 특성화된 교실이 요구된다. 즉, 외국어 전용 교실, 과학 실험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등에 국한된 전용 교실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과학 실험과 음악실 악기를 활용한 실용 교육 등

교과 학습의 효율성을 적극 증대시키고,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등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각 교과 전용교실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입장에서 예술적 감동을 느끼거나 실제적 체험중심 탐구·협동 학습 및 문제해결 학습을 활성화하여 교육만족도와 성과를 높여야 한다.

(11)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며, 학생의 기초 학습,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통한 수준별 보충 수업을 실현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소외 계층의 집중 지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학교 내 교육 활동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통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외부의 지도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평가 활동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적 편성·운영과 이에 따른 책무성 강화로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년 자체 성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책무성과 관련되기도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

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표 III-5>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 예시 자료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	◦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계획·운영실태·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였는가?
		◦ 지역 사회·학교의 특성 및 학생·학부모·교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조사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수립 과정에 만족하는가?
	계획 내용	◦ 국가 교육과정 기준 및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의 교육 중점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계획하였는가?
		◦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영역별 평가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 내용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	◦ 교과 교육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 수업을 실시하였는가?
		◦ 교과별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교과 교육 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과 실제 운영은 일치하였는가?
		◦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는가?
		◦ 창의적 체험활동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교원·학생·학부모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는가?
	지원 체제	◦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연수 및 장학을 실시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모, 지역 인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시설, 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였는가?
		◦ 교사·학생·학부모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만족하는가?
학교 교육과	교육 성과	◦ 학생은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성취 기준에 도달하였는가?
		◦ 학생의 영역별(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었는가?
		◦ 학생은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였는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10) 학교 교육과정 평가 준거는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민용성 외, 2009)에서 제시한 내용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일부 변형한 것임.

정 성 과		◦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계획별 교육성과에 만족하는가?
		◦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와 각 교육계획에 따른 학교 변화에 만족하는가?
	교육 성과 활용	◦ 학교·교원·학생은 교육과정 목표달성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는가?
		◦ 학교·교원은 평가결과 문제점과 교육과정 성과를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운영에 활용하였는가?

(2) 학생의 교육활동 평가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다) 교과와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와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 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過程)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는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습의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도달점의 확인을 위한 평가보다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교과서 내용의 암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이해 습득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 방향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알맞게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교육현장에서 학생 상담 등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평가 후 문제풀이 해설 등 평가 환류 활동에 노력한다.

학교는 교육청이 제공하거나 학교가 개발한 평가지를 우선 활용하고, 민간업체가 작성한 평가문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률적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과별 또는 학년별 등 학교차원의 평가문항 제작과 관리 등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에서 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 선다형의 지필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역기능 현상을 줄이고, 평가의 적극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시도교육청 방침 등을 참고로 하여 서술형평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사전에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목표점을 명확히 밝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적·기능적·창의적인 면이 중시되는 교과는 태도·표현·기능 평가를 위한 실기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안을 작성·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 즉 수행평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형 또는 주관식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찬·반 토론법, 실기 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계획의 수립 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가진 사항을 평가하되,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수증배 등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거나 연습하지 않은 교과내용 등을 평가에 반영할 경우 사교육이나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부모 등 가정 부담이 초래되는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그 이외의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정 척도를 작성·활용한다.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학교가 제공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1) 시·도 교육청 지원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국가는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연수 지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지원단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석·환류 등 단위학교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과 집중 이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순회교사 배치, 소규모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 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국가차원에서 해줌으로써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상시 평가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간의 유기적인 지원체제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2)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평가 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시행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지침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당초 의도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및 교육청 평가, 평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질 관리의 일환으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복지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와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촉진시킨다.

학교 평가는 단위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유인가(incentive)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와 지원 체제에 대한 적절성 및 실효성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3) 국가 수준의 평가 지원 활동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국가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밀도 있게 실행되도록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 이를 관내의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학교 현장의 중간 위치에 있는 교육청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적절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의도하는 초·중등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내용·방법·평가 등의 제반 기준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의도된 교육과 전개된 교육, 실현된 교육의 공통 영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자 하는 국가 수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 학교’의 상호 유기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 검토 및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이 단위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 예를 들면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명칭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조사 연구,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하부 조직으로 교과별, 학년별 및 학교급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부 교육과정 조직을 상호 연결, 교류하여 시·도 교육청이 의도하는 교육의 일관성과 계열성을 유지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교육 중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학교급별로 중복하여 실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위원회의 최상위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 위원회의 조직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관련 조직인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또는 별도로 구성되는 연구 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학교급별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학교 급별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교육과정 위원회 또는 별도의 기구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한다. 자연, 산업, 역사, 문화, 의식 등은 물론,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지도 실태, 시설·환경 및 재정 등 기초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시사점을 추출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를 통해 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 중점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 조사·연구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기관, 연수 기관, 학회, 교원 양성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초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교육 현황 조사

- 학교 현황(학교 수, 학교 규모, 학급 규모, 지역별 학교 등)
- 교원 현황(남녀 교원, 전담 교사, 연령별, 자격별 등)
- 학생 현황(남녀 학생 수, 학급별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등)

-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자연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개발 계획 등)
 - 인문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문화 등)
 - 사회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
- 지역의 요구 조사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 교육활동 만족도
 - 지역 사회의 요구 및 필요
 - 학부모의 교육관 및 기대 수준
- 지역 사회의 시설·환경
 -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파악
 - 지역 사회의 시설 활용 현황
 -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현황
- 시·도 교육청의 강조 사항
 - 교육 중점 과제의 선정·운영 실태
 - 미래 지향 교육 방향 설정(단기·중기·장기 계획 등)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 교육 중점 실태(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 및 교훈 등)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편제와 시간 배당 실태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
- 교육 시설·설비 및 자료 활용 현황
 -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 실험·실습의 시설 및 설비
 - 교육 기자재 보유·활용 현황
-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원 연구 모임 현황(종류, 활동 실태 조사 등)
 - 교원 연수 현황(학교별 연수, 지역별 연수 등)
-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
 - 학교와 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제

이상과 같은 각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교육청의 교육 중점이나 강조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에 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

립하여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지원

-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운영·지원하고, 교과별·연구 영역별 수업 연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교사 연구 모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교사들이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등 3개 학년군으로 구성하였으며, 교과의 경우 기존 10개 교과를 사회와 도덕 교과를 ‘사회/도덕’ 교과군으로, 과학과 실과를 ‘과학/실과’ 교과군으로, 음악과 미술을 ‘예술(음악/미술)’로 재편하여 7개 교과(군)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 및 시수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됨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지원 기구로서 교육과정 컨설팅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하도록 한 후 이를 보급하여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컨설팅 기구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현장 교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 컨설팅 기구 또는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등의 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수는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나 교사가 겪는 현장의 문제점을 연수의 내용과 협의 과제로 삼아 교사 스스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

원을 한다.

-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학년도 개시 이전에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새 학년도의 개시와 동시에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 전보의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농촌·산촌·어촌 및 벽지 지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복식 학급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 등에서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공동 편성이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과 통합적인 교육 활동, 직접적인 체험 활동, 주제 중심의 다양한 교육, 수준별 수업 운영 등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육 시설·설비, 인적 자원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학년 체제 운영 방식과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복식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재구성,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을 위해 교육지원청, 교과 연구회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 및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지원

-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은 모두 지역 자원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교수·학습 내실화를 위한 지원

-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수준별 수업의 근본 목적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교육 경험을 의미있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단위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에 관한 방법, 사례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에 힘써야 한다. 즉, 수준별 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원 수급 현황 및 강사비 지원, 수준별 수업 매뉴얼의 개발 보급,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지원 및 수준별 평가 문항의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대한 사항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타 활동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

-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능력 있는 학생에게 능력에 따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귀국자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하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년 및 학기 집중 이수에 따라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전학하게 되는 학생들이 교과 집중 이수로 인해 교과 미이수나 중복이수를 하게 되는 경우,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전학 등으로 해당 교과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성취수준 등을 확인하여 이수 인정을 해주거나(귀국 학생 등의 사례 참조), 방과후 학교, 방학 중 보충 학습 과정을 개설하여 학습 결손을 보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지원 사항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학교의 돌봄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돌봄 기능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교육활동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 학교 및 보육 교실 운영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우수 강사 확보, 학습 시설 및 교재·교구의 구비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 수준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8)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한 지원

-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실행 프로그램이자 상세한 교육 운영 계획으로서 그 학교만의 교육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그 속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학교만의 교육 내용, 방법,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지도,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가 및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을 통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가. 교육과정 편성 원칙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설립한 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울러 공민학교를 포함한 특수한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특정 목적 하에 학교 운영의 특례 등이 부여되고 있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 등으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는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 요청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의 취지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부록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 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 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 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 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 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 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 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 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 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 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 와 같습니다.
15. 중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6】 과 같습니다.
16.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7】 과 같습니다.
17.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18】 과 같습니다.
18.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7】 과 같습니다.
19.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8】 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라. 단,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화법과 작문 I·II, 독서와 문법 I·II, 문학 I·II,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물리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지구과학 I·II,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농업 생명 과학, 공

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II, 프랑스어 I·II, 스페인어 I·II, 중국어 I·II, 일본어 I·II, 러시아어 I·II, 아랍어 I·II, 한문 I·II는 2012년부터 적용하며,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표가 된 과목의 경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분 \ 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국어	국 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 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즐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3)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8)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 한다.
-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 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 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④ 필수이수단위의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 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3) 보통 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I,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 문학 II
	수학	수학*, 수학의 활용,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 영어 I,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심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예술	음악*,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음악/미술)	미술*,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한문 I, 한문 II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 ①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 ② *표 한 과목은 교과(군)별 학습의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목은 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전문 교과

교과	과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생물 공학 기초 산림 자원 기술 원예 기술 I 사육 기술 II 조경 기술 II 농업 토목 기술 II 농업 기계 기술 II 식품 가공 기술 II 환경 보전	농업 기초 기술 채배 원예 원예 기술 II 누예와 비단 농업과 물 농업 기계 식품 과학 농산물 유통 환경 관리 I	농업 정보 관리 작물 생산 기술 생활 원예 동물 자원 조경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기계 공작 식품 위생 농산물 유통 관리 I 환경 관리 II	농업 경영 숲과 인간 생산 자재 사육 기술 I 조경 기술 I 농업 토목 기술 I 농업 기계 기술 I 식품 가공 기술 I 농산물 유통 관리 II 농업과 관광	식물 자원과 동물 자원과 농업 토목과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과 조경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 농업과 생물 공학과
공업	공업 입문 기계 일반 기계 공작법 기계 기초 공작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제조 전기 응용 전력 설비 II 전자·전산 응용 정보 통신 프로그래밍 토목 설계 지적 전산 건축 목공 색채 관리 시각 디자인 제조 화학	기초 제도 전기 일반 원동기 공작 기계 I 전자 기계 이론 로봇 기초 재료 가공 전기 회로 전기·전자 측정 전자 회로 통신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 토목 일반 지적 실무 건축 시공 I 조형 컴퓨터 그래픽 분석 화학	정보 기술 기초 공업 영어 유체 기기 공작 기계 II 전자 기계 회로 로봇 제작 주조 전기 기기 자동화 설비 계측 제어 컴퓨터 구조 측량 토목 재료·시공 건축 구조 건축 시공 II 제품 디자인 공업 화학 기능성 세라믹	전문 제도 기계 설계 공기 조화 설비 산업 설비 전자 기계 공작 재료 일반 금속 처리 전력 설비 I 전자 기기 통신 일반 시스템 프로그래밍 역학 수리·토질 건축 계획 일반 디자인 일반 공예 단위 조작·공정 제어 세라믹 원리·공정	기계과 전자 기계과 금속 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 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 공업과 환경 공업과 세라믹과 식품 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상업 정보	구조 세라믹 식품 분석 제포·봉제 평판 인쇄 자동차·건설 기계 건설 기계 구조·정비 선박 건조 항공기 장비 대기·소음 방지 컴퓨터 게임 그래픽 영화·방송 제작	세라믹 디자인 식품 공업 기술 염색·가공 특수 인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차체 수리 항공기 일반 항공기 전자 장치 폐기물 처리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촬영·조명	발효 공업 섬유 재료 인쇄 일반 사진·전자 제판 자동차 새시 선박 이론 항공기 기체 환경 공업 일반 컴퓨터 게임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 방송 시스템	식품 제조 기계 방직·방사 인쇄·사진 재료 사진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박구조 항공기 기관 수질 관리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만화 창작	항공과 컴퓨터 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 제작과
	상업 경제 경영과 법 커뮤니케이션 실무 세무 회계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프로그래밍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컴퓨터 일반 마케팅과 광고 원가 회계 금융과 생활 유통 정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실무 전자 상거래 실무	회계 원리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회계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물류 관리 사무 관리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마케팅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리 전산 회계 무역 영어 자료 처리 멀티미디어 일반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경영 정보과 회계 정보과 무역 정보과 유통 경영과 정보 처리과 멀티미디어과 전자 상거래과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 과	과 목				기준 학과
수산· 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운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 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I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I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I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술	스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	전공 실습		
	음악 이론	음악사·감상	시장·청음	음악 전공 실기	음악과
	합창	합주	연주	컴퓨터와 음악	미술과
	교양 실기				무용과
	미술 이론	미술사	소묘	기초 회화	문예창작과
	기초 조소	기초 디자인·공예	미술 전공 실기	영상 매체와 미술	연극영화과
	미술 감상과 비평				사진과
	무용의 이해	기초 한국 무용	기초 발레	기초 현대 무용	
	무용 전공 실기	무용 음악	안무	무용 감상과 비평	
	문학의 이해	문장론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시 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매체와 문학	
	연극의 이해	무대 기술	연기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의 이해	영화 기술	영화 창작과 표현	
	영화 제작 실습	영화 감상과 비평			
	사진의 이해	기초 촬영	중급 촬영	암실 실기	
	사진 편집	디지털 사진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	

교과	과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청해	영어 회화 I	영어 회화 II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영어권 문화 I	영어권 문화 II	
	영어 문법				
	기초 독일어	독일어 청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 I	독일어권 문화 II	
	독일어 문법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 I	프랑스어권 문화 II	
	프랑스어 문법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국제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I	스페인어권 문화 II	
	스페인어 문법				
	기초 중국어	중국어 청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I	중국 문화 II	
	중국어 문법				
	기초 일본어	일본어 청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I	일본 문화 II	
	일본어 문법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I	러시아 문화 II	
	러시아어 문법				
	기초 아랍어	아랍어 청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I	아랍 문화 II	
	아랍어 문법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I	국제 정치 II	국제 경제 I	국제 경제 II	
	세계 문제	비교 문화 I	비교 문화 II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예능 실습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체육, 외국어, 국제계열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따르되, 과학, 예술 계열은 필수 이수과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 (나) 교과와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라)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마)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아)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와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 (카)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나)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라)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 (마)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 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 (아)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나)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 (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보통 교과의 이수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마)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배)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 (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 (애)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

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 활동

-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다) 교과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바)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

-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19)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 나.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식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부록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신·구 비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교육과정의 성격	<좌동>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좌동>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 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좌동>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좌동>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좌동>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삭제>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u>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u> 체제를 도입한다.	나.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u>공통 교육과정</u> 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u>선택 교육과정</u> 으로 편성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마.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및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이수단위를 제시한다.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 부담의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를 확대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신설>	아.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 목표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좌동>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마.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삭제>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편 제	(1) 편제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 한다.	<삭제>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 으로 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 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 량 활동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별표 1 참고)
<신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신설>	(1)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 로그램 등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사용 능 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다.	(2) 학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 성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 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3)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 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정확한 국 어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 다. 특히, 기초적 국어사용 능력과 수리 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 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4)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5)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과 교과(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 학기별로 집중 이수를 통해 학기당 이수 교과 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신설>	(7)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8) <u>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u>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9)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별로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한다.
<신설>	(10)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중학교
2. 중학교 교육 목표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u>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u>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u>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다원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u>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 제	(1) 편제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별표 2 참고)
<신 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1)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신설>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3)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5)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㉔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6)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바) 이 교육 과정에 예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태)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8)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신설>	(9)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고등학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 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신설>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 제	(1) 편제
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가)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나)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2)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별표 3 참고)
<신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1)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4 단위로, 선택 과목에 136 단위, 특별 활동 에 8 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 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 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신설>	(나) 교과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태)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II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태)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 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바)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bb)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a)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신설>	(자)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전문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채)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외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신설>	(가)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해야 할 학년별, 학기별 과목을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신설>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신설>	(나)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위 수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라) 학교는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학교자율과정’에서 진로 집중 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운영한다.
<신설>	(마)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다.
<신설>	(아) 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 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③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u>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u>	(나)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u>5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다.</u>
(나) <u>선택 과목 중에서</u>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u>보통 교과의</u>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마)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u>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u> 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라)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u>보통 교과의 과목과 전문 교과의 과목</u> 은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매)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 할 수 있다.
(바)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①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아)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② <u>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u>
⑫ <u>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u>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신 설>	(바)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u>50% 이상의 전공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u>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u>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u>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u>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u>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u>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u>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가) 학교는 <u>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u> ,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u>편성, 운영한다.</u>	(1) 학교는 <u>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u>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u>편성·운영한다.</u>
(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ㄷ)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ㄹ)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8)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u>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u>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10) <u>공통 교육과정에서는</u>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신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 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⑦ 교과와 <u>재량 활동</u> , <u>특별 활동</u>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16) 교과와 <u>창의적 체험활동</u>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교과와 <u>특별 활동</u> 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교과와 <u>창의적 체험활동</u> 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캐)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태) <u>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u>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u>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u> 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 <u>한국 정치·경제 교육</u>, …,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u>한국 문화사 교육</u>, <u>한자 교육</u>, <u>녹색 교육</u> 등
(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3)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u>수준별 교수·학습 자료</u> 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4) 교과용 도서 이외의 <u>교수·학습 자료</u> 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5)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26)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7)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나. 평가 활동
(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가)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나)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교과 평가는 <u>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u> 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u>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u>	(다) 교과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라)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마)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해)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8) <u>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u>	(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지원한다.
<신설>	(1)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2) 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u>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u>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u>교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u>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u>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u>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교과별로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삭제>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나.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
<신설>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u>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u> ,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u>교육 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u> ,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2)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4) 학년군, 교과군 도입을 통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등 지원 기구를 조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각종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다.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교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 향상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마)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6)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마)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7)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8)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바)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9)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신설>	(10) 개별학교의 희망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내 학교간 개설할 집중과정을 조정하고, 그 편성·운명을 지원한다. 특히,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집중과정을 개설할 학교를 지정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11)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차)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12)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태)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13) 전·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14)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캐)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15)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청은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사)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6)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마)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17)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신설>	(18)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19)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가)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20)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한다.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1)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u>편성한다</u>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u>편성·운영한다</u> .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나. <u>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u> 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나. <u>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u> 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다. <u>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학교 (3년제 과정)</u> ,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다.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좌동>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u>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u> 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u>고등학교 교육과정</u> 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u>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u> 에 준하되, <u>170단위 이상</u> 이수하도록 한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u>고등학교 교육 과정</u> 에 준하되, <u>162단위 이상</u>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상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좌동>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좌동>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u>부여한다</u> .	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u>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u> .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구)	2009 개정 교육과정(신)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삭제>
(2)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제>
(3)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삭제>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삭제>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좌동>

<부록3>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¹¹⁾

- ① 대한민국헌법 [전부 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 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7호]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 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10. 2. 26. 법률 제10046호]
- 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2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규정 [타법개정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 ⑧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10. 5. 4. 대통령령 제22143호]
- ⑨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9호]
- ⑩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009. 6. 9. 법률 제9970호]
- ⑪ 학교보건법시행령 [타법개정 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
- ⑫ 저작권법(타법개정 2009. 7. 31. 법률 제9785호)
- ⑬ 저작권법시행령[타법개정 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
- ⑭ 저작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9. 7. 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 ⑮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10. 3. 17. 법률 제10083호]
- ⑯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타법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⑰ 영재교육진흥법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⑱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1호]
- ⑲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
- 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2008. 6.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 ㉒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10. 3. 17. 법률 제10082호]
- ㉓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타법개정 2009. 2. 3. 대통령령 제21291호]
- ㉔ 유아교육법[일부개정 2010. 3. 24. 법률 제10176호]
- 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타법개정 2010. 2. 4. 법률 제10021호]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그 밖에도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 이념’,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과정 및 교과’,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습부진아 교육, 수업 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11)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 일자: 2010. 7. 5.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등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에 해당된다.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교육의 이상이며, 교육이란 개인을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한다. 그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 교육권을 가진 모든 교육 주체의 중심이 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제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 기준이 된다.

나. 교육 이념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人格)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 전인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¹²⁾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도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이념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1949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12)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관한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 교육’의 방향이 우리나라 교육 문헌에 분명하게 표현된 것은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이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된 것으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다.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 초·중등교육법

제 38 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38 조에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교육 목적이 학교급별로 제시된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교육 목표도 학교급별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적인 초등교육’은 전문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삶을 위한 일반적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필요한 보편적 능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교육과정 및 교과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은 단위학교에서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단위학교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동법 제 23 조 제 2 항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②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는 국가의 관여를 통한 전문적 지도 조연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

동법 제23조 제3항은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는 초등학교의 교과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마. 학기, 학급 편성, 수업 운영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이 운영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1항),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항).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시행령 제44조에 제시되어 있다.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시행령 제45조).

시행령 제46조에는 학급 편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 소인수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경우, 동일 학년군 내 또는 학년군 간 통합 운영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에서도 활동 주제의 특성, 동아리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등이며(시행령 제47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¹³⁾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 수업, 계절 수업, 시간 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 수업 일수, 학급 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

13)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 12. 29)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에 의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 ⑥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⑩ 12월 25일(기독교 탄신일), ⑪의 2. 공직 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4 조 (학기) 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5 조 (수업 일수)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 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제 46 조 (학급 편성)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 47 조 (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수업 운영 방법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 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49 조 (수업 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교육과 함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도 교사의 전문성과 순기능 등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제5항). 또한, 학교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49조).

바. 학년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습부진아 교육, 수업 연한

■ 초·중등교육법

제 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39조(수업 연한)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0 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원칙적으로 학년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39조에는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27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28조에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배려를 통해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54조).

시행령 제50 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있으며,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학업을 마침을 의미한다.

사.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초·중등교육법

제 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9조는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는 ‘국정 도서’,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검정 도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는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초등학교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책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초·중등교육법

제 32 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과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학교의 교과·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 ③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교육적인 학교 행사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⑥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 7 조 (장학 지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 조 (학생 자치 활동)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 조 (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에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 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7 조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8 조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 조에 명시되어 있다.¹⁴⁾

차. 평가 및 학교생활 기록

■ 초·중등교육법

제 9 조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4)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①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③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④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⑦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⑧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 학칙 개정 절차, ⑩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제 25 조 (학교생활 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¹⁵⁾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제13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부록4>

초등학교 교육과정 변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우선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기점을 언제부터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시대 구분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시대 구분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또는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교육 사조나 이론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할 수는 있으나, 이 해설서에서는 광복 후 국가에서 문서로 공포(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 관점에서 보면,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으로 볼 수 있다.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의 시기(1945~1946)

8·15 광복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본의 강점 하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의 성격은 미군에 의한 직접 통치로써, 군정 법령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상, 식민지적 사상과 형태를 불식시키고, 광복을 맞은 한국을 민주화시키려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4호로 9월 24일을 기하여 모든 공립 소학교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사립 소학교는 개교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일반 명령 제4호’에 따라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교과목 등 교육 내용에 관련된 것은 ‘교수 용어를 한국어로 할 것과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은 일체 교수함을 금하는’ 포괄적인 지시였다. 이어 평화와 질서를 당면한 교육 목표로 하고, 일본 제국주의적 색채를 없애도록 하는 교육의 일반 방침을 시달하는 한편, 초·중등학교 교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표를 시달하였다.

교과서 문제는 각 학교로 하여금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되, 산수나 이과와 같은 교과목 외에는 일본 교과서의 사용을 금하였다. 이 때의 임시 교과목 및 교과 시수표는 일제 강점기 말기의 심상소학교의 교과목 및 수업 시수표를 근간으로 개정된 임시 방편의 것이었지만, 수신과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등장시킨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의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가 우리 국사로 대체된 점 등 주로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탈피하고 신생 국가로서의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1>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수 시수표(1945. 9)

학년 \ 교과	공 민	국 어	지리·역사	산 술	이 과	음악·체육	계
1~3	2	8	1	5	1	3	20
4	2	7	1	4	3	3	20
5~6	2	6	2	3	2	3	18
고 등 과	2	6	2	2	2	3	17

(출처) :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서울특별시 인쇄 공업 협동 조합, 1988), p. 13.

<표 1>과 같은 이러한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방 직후 국민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긴급히 결정한

것으로 결정된 직후에 <표 2>와 같이 수정하여 시달하였다. 이 때의 교과 편제에는 습자·도화·요리·재봉 및 실업이 추가되어 시간 배당이 늘었고, 4학년 이상은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남녀별로 다르게 되어 있었다.

<표 2> 국민학교 교과목 및 교수 시수표(1945)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공민	2	2	2	2	2	2
국어	8	8	8	7	6	6
역사	-	-	-	-	2	2
지리	-	-	-	1	2	2
산수	6	6	7	5	5	5
이과	-	-	-	3	3	3
체조	4	4	5	3	3	3
음악	-	-	-	2	2	2
습자	-	-	1	1	1	1
도화공작	2	2	2	남 3 여 2	4 3	4 3
요리·재봉	-	-	-	여 3	3	3
실과	-	-	-	남 3 여 1	3 1	3 1
계	22	22	25	30	33	33

(출처) : 문교부, 편수 자료 I - 교육과정 변천 및 편수 일반-,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0), p. 3.

2. 교수 요목의 시기(1946~1954)

교수 요목의 시기는 1946년부터 1954년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나오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교육과정의 개념상 교수 요목과 교육과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교수 요목이란 교과 내용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이며,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을 열거한 데 불과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즉시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로 교육에 관한 응급조치를 했던 미 군정청 편수국의 교과별 편수관들은 위원회(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한편, 교과서 편찬에 착수하였다. 한편, 1946년 9월 1일에는 국민학교 교수 요목을 시달하였고, 1947년에는 중학교의 학제 변경에 따른 교과목별 주당 수업 시간표를 정하고, 교과목별 교수 요목을 시달하였다. 이 때의 교수 요목은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그 구성의 방향이나 이념 또는 목적, 운영상의 유의점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문헌에 나타난 교수 요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표방되었다.

첫째,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제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하였다.

대체로 당시의 교수 요목은 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으며, 그 내용은 고답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새로운 교육 사조를 받아들이기 전이어서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교육 내용을 참작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용면에서 일제 잔재를 불식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는데, 한글 전용, 우리말 다시 찾기 및 우리말 용어 제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에는 교수 요목을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정도로 교과서의 발행이 시급하였다. 그것은 교육심의회 제9분과에 교과서 준비 위원 문제, 교과서 검사 제도, 표준 출판 배부 방법, 교과서의 한문 폐지 문제, 교과서의 무상 제공 문제 등 교과서에 관하여 연구·검토하는 일이 위촉되었을 뿐, 교수 요목이나 교육과정을 다루는 분과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이 교수 요목은 정부 수립과 교육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으로 중단되어 1954년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이듬해의 ‘교과 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과서가 편찬되어 사용되었다.

교과별 교수 요목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진술 체제가 교과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회 생활과와 같이 교과목의 목표와 방침, 운용법(운영상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한 교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과가 단원 또는 제재명과 내용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었고, 둘째, 각 교과마다 단원 또는 제재별로 이수할 시간 수를 밝히고 있었다. 또한, 셋째, 내용 요소의 진술 형식도 설문 형식, 단순한 내용 요목 제시 형식 등 교과에 따라 달랐으며, 넷째, 교과의 편제는 실과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금과 비슷한 편제를 갖추었는데, 가장 특색 있는 것은 ‘사회 생활과’의 탄생이다. 사회 생활과는 공민, 역사, 지리, 직업, 자연 관찰(1~3학년)을 종합하여 편성한 교과로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민주 시민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제된 것이었다. 이것은 지식 중심의 교과 내용이 생활 중심의 교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앞으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 중점적으로 도입될 것을 예측하게 하였다.

<표 3> 교수 요목 시기의 국민학교 교과목 및 연간 수업 시간표(1946. 9)

교과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 어	360	360	360	360	320	320
사회 생활	160	160	200	200	남 240 여 200	240 200
이 과	-	-	-	160	160	160
산 수	160	160	200	200	200	200
보 건	200	200	200	200	200	200
음 악	80	80	80	80	80	80
미 술	160	160	160	160	남 160 여 120	160 120
가 사	-	-	-	-	여 80	80
계	1,120 (28)	1,120 (28)	1,200 (30)	1,360 (34)	1,360 (34)	1,360 (34)

※ 시간은 1년을 40 주로 하여 교과별 연간 이수 시간 수를 나타낸 것임.

(출처) : 함종규,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전편),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 189.

<표 3>의 편제표에서 이과의 1, 2, 3학년에 시간 배당을 하지 않은 대신, 그 내용을 사회 생활과에서 ‘자연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학년별로 연간 38시간씩 이수하도록 하였고, 실과의 내용은 남자의 경우 5, 6학년 사회과와 미술과에서, 여자는 가사과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3.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개정, 공포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부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기까지의 교육과정으로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 과정의 시기’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시기’라고도 한다.¹⁾ 이 시기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라고 정의하였으며,²⁾ 이 때의 교육과정은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기는 하나 ‘생활 교육’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 있었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46년과 1947년에 시달된 교수 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49년 교육법의 공포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당시의 교육법 제155조에는 “대학, 사범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교과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시간 배당과 교과 과정을 새롭게 정하지 않을 수 없어 곧 교육과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6·25 전쟁을 겪게 되어 그 계획은 중단되었으며, 정부가 부산에 옮겨져 있던 1953년에 다시 개정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우선 교육계 및 기타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한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전후 총 29회의 토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을 작성하여,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하게 되었다. 이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정해지자, 후속 작업으로 교육과정 제정을 서둘러 이듬해인 1955년 8월 1일자로 각급 학교 교과 과정을 공포하였는데, 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것을 우리는 ‘제1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제1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2조에서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한 규정과 문교부령 제44, 45, 46조로 공포된 교육과정의 명칭 자체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보아서도 교과 교육과정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교과 과정’ 머리말의 ‘三.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에는 당시의 교육과정의 성격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³⁾ 이 교육과정은 학습 지도 계획과 실제 지도 및 학습 평가의 ‘보편적 기준’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편찬될 교과용 도서는 본 과정의 지도 목표와 내용을 구현함에 힘쓸 것이며, 본 과정의 세밀한 검토 아래 지도 범위와 정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은 본 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학습 자료도 본 과정의 취지 아래 이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과 과정에 따라 교과서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의 종별을 명백히 하였다. 이리하여 새 교과서 편찬이 1958년 봄까지 끝남으로써 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대의 교육과정이 지적인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경험과 생활을 존중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 개념의 반영 또한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⁴⁾ 교육과정 자체는 ‘교과 중심’이었으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편찬

1) 문교부, 한국 교육 30년, (서울 : 문교부, 1980), p. 64.

2) 문교부령 제35호, 제1장 총칙 제2조, 1954. 4. 20.

3)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총론,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86), p. 25.

4) 이러한 성격은 교과 과정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의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하는 교과서는 이미 ‘생활 중심’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구성 방침이나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본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사회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교육을 통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부흥시키고 미개발된 사회 환경을 발전시켜 보려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정부 수립 후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 제시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내용은 적절, 필수, 최소량이어야 함을 밝혀 지적 체계와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 과정 체계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넷째,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반공·도의 교육을 강조하게 된 까닭은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해 도덕적인 타락이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반공 의식의 고양이라는 때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 교과는 필수, 선택을 합하여 총 이수 시간의 30% 이상이 되도록 시간을 배당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직업 교육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특별 활동 시간을 배당하여 전인 교육을 지향하였다. 특히, 특별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적 학생 활동, 학생의 개별 성장,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임을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서 밝히고 있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① 본 과정이 나오기까지, ② 기본 태도, ③ 운영상의 주의만 간략히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정신이나 체계를 이해하는 총론으로서의 미흡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으로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특징이 있으나,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 진술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표 4>를 보면, 편제상의 특징으로서 특별 활동이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으로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활동이 처음으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과는 대교과제를 취하여 8개 교과로 하였으나, 지금의 도덕과는 편제표상에 편제되어 나타나지 않고, 각 학년 총 이수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35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여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총 이수 시간 수에 대한 백분율(%)로 제시한 것이 제2차 교육과정 이후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특히, 이 때부터 단위 수업 시간의 운영에서 분과 또는 통합 운영지도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음은 교과의 통합적인 운영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⁵⁾

-
- ① 계통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던 종래의 교과 학습의 배열을 버리고, 생활 중심의 단원 학습으로 배열한 점
 - ② 종래의 소단원제를 지양하고 대단원제로 시정하여 학습의 생활화와 학습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 점
 - ③ 종래의 지식과 암기를 강요하는 주입식 방향을 피하고 학생의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해와 기능 및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힘쓴 점
 - ④ 아동의 흥미 중심의 작업 단원을 되도록 많이 설정하고, 작업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자기의 생활 경험을 심화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점

5)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장 제 8, 9, 10조의 규정

“제9조 : 국민학교의 수업 시간은 40분을 단위로 한다. 단, 학교장은 단위 수업 시간을 2개 이상으로 나누거나 또는 2

<표 4>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1954. 4. 20)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 어	25~30% (240~290분)	25~30% (240~300분)	27~20% (290~220분)	20~23% (220~260분)	20~18% (240~220분)	20~18% (250~220분)
산 수	10~15 (100~140)	10~15 (100~150)	12~15 (130~160)	15~10 (170~110)	15~10 (180~120)	15~10 (190~120)
사회 생활	10~15 (100~140)	10~15 (100~150)	15~12 (160~130)	15~12 (170~130)	15~12 (180~140)	15~12 (190~150)
자 연	10~8 (100~80)	10~8 (100~80)	10~15 (110~160)	13~10 (140~110)	10~15 (120~180)	10~15 (120~190)
보 건	18~12 (170~120)	15~12 (150~120)	15~10 (160~110)	10~12 (110~130)	10~12 (120~140)	10~12 (120~150)
음 악	12~10 (120~100)	15~10 (150~100)	8~10 (90~110)	8~5 (90~60)	8~5 (100~60)	8~5 (100~60)
미 술	10~8 (100~80)	10~8 (100~80)	8~10 (90~110)	7~10 (80~110)	10~8 (120~100)	10~8 (120~100)
실 과				7~10 (80~110)	7~10 (80~110)	7~10 (90~130)
특별 활동	5~2 (50~20)	5~2 (50~20)	5~8 (50~80)	5~8 (60~100)	5~10 (60~120)	5~10 (60~120)
계	100% (960 분)	100% (1,000 분)	100% (1,080 분)	100% (1,120 분)	100% (1,200 분)	100% (1,240 분)
주간 총 수업 시간수	840 시간 (24)	875 시간 (25)	945 시간 (27)	980 시간 (28)	1,050 시간 (30)	1,085 시간 (31)

(비고) 1. 백분율은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의 1년간 수업 시간에 대한 학년별 시간 배당을 표시함.

2. () 안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을 표시함.

(출처) :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1.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4.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는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1973년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시 개정할 때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개념은 교과 간 비교적 서로 형적인 관련이 결여된 일군(一群)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구성된 교과 과정과는 달리 ‘학교의 주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 라고 보았다.⁶⁾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개 이상의 수업 시간을 합칠 수 있다.”

6) 문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총론),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 1986), pp. 26~27.

제1차 교육과정은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에 제정되어,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스푸트닉(Sputnik) 충격에 따른 세계적인 교육 경쟁의 현상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그 초점은 초·중등교육 개선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초·중등교육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조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자료 수집에 힘써 오던 중,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종래의 교육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 되어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이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생활이나 경험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었으며⁷⁾,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운영 면에서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여 생활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잘 표방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자주성을 강조하였는데,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려는 인간상은 막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르려함이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성을 강조하였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적당한 방법을 습득시켜 우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기능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 기술의 습득과 실업 및 직업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계획하도록 힘썼다. 또한 유용성을 강조하였는데,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도록 하고, 학습 지도에서는 지식 습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의 절실한 요구, 학생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조직에서는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각급 학교 간의 연결, 각 학년 간의 관련, 각 교과와의 계통적 발전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원칙에 따라 학생의 성장 발달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성 있고 계통적 발전성을 보장해 주는 역동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교육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학습 경험의 결과는 민주 사회에 봉사하고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지역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상의 특징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7) 문교부령 제 119 호로 공포된(1963. 2. 15.) 「제2차 교육과정 총론 제2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경험(생활) 중심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①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②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③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시킨다.
- ④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시킨다.
- ⑤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 ⑥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 ⑦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이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①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한다.
- ②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 ③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과의 종합 지도를 강조한다.
- ④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를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및 특별 활동으로 한다.
- ⑤ 중학교의 교과는 공통 필수 교과만을 둔다.
- ⑥ 고등학교에서는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각급 학교의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 ⑧ 시간 배당 계획의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
- ⑨ 교육과정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을 통일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요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을 강조하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급 간의 연계성(articulation)과 아울러 교과 간의 통합성(integration)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국민학교의 저학년(1, 2학년)에서 각 교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통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1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별도로 공포했던 것을 통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명실 공히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그리고 명칭도 제1차의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의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인을 제시한 다음, 학교급별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론에서도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 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특히, 학년 목표를 신설한 것은 교과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 면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국가수준의 기준으로서의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5> 참조).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19호로 공포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① 교과 활동, ② 반공·도덕 생

활, ③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간 배당 기준에 있어서는 각 교과별 시간량을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당 이수 시간으로 표시하고, 특별 활동은 총 이수 시간 수의 백분율로 표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의 8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사회 생활과’가 ‘사회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수업 일수는 연간 35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 수업 시간은 40분이나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1, 2학년의 학습 지도는 1차와 마찬가지로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도’를 강조하였다.

<표 5>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63. 2. 15)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교과	국 어	6~5.5	6~7	6~5	5~6	6~5.5	5~6
	산 수	4~3	3~4	3.5~4.5	4.5~4	4~5	5~4
	사 회	2~2.5	3~2	3~4	4~3	3~4	4~3
	자 연	2~2.5	2~2.5	3.5~3	3~3.5	4~3	4~3
	음 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 육	2.5~3	3~2.5	3~3.5	3.5~3	3~3.5	3.5~3
	미 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 과				2~1.5	2.5~3	2.5~3.5
반공·도덕		1	1	1	1	1	1
계		21	22	24	26	28	28
특별 활동		5~10 %	5~10 %	5~10 %	5~10 %	5~10 %	5~10 %

(출처) :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라. 부분 개정

1963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1964년부터 연차적으로(1·2학년: 1964, 3·4학년: 1965년, 5·6학년: 1966년)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교과서의 지도 지침이 발간되었다. 이후, 1968년의 국민 교육 현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는 취지 하에,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251 호로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부분 개정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을 강화하고 특별 활동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 활동의 변화로는 국어과에서 완전한 한글 전용의 실시를 위하여 한자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술과에서 표준색을 종래의 12색(또는 24색)에서 10색(또는 20색)으로 하였다. 반공·도덕 생활은 시간 배당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였고, 특별 활동 구성 체계를 보완하여 국민교육 현장 이념과 관련하여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① 학급회 활동, ② 아동회 활동, ③ 클럽 활동의 세 영역에 따라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시간에 대한 백분율(각 학년별로 5~10%)로 제시되었던 시간 배당 기준을 1~2

시간으로 표시하여 최소 시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⁸⁾

<표 6>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69. 9. 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 과	국 어	6~5.5	6~7	6~5	5~6	6~5.5	5~6
	산 수	4~3	3~4	3.5~4.5	4.5~4	4~5	5~4
	사 회	2~2.5	3~2	3~4	4~3	3~4	4~3
	자 연	2~2.5	2~2.5	3.5~3	3~3.5	4~3	4~3
	음 악	1.5~2	2~1.5	2~1.5	1.5~2	2~1.5	1.5~2
	체 육	2.5~3	3~2.5	3~3.5	3.5~3	3~3.5	3~3.5
	미 술	2~1.5	2~1.5	2~1.5	1.5~2	2.5~1.5	1.5~2.5
	실 과				2~1.5	2.5~3	2.5~3.5
반공도덕		2	2	2	2	2	2
계		22	23	25	27	29	29
특별 활동		1.5~	1.5~	2~	2~	2.5~	2.5~

(출처) : 문교부령 제251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9. 9. 4.

이와 같이, 1930년부터 미국에서 활발히 전개된 생활 중심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수 요목의 시기와 교과 과정의 시기를 거쳐 1963년의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착되었다.

5.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1973~198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제정 상 처음으로 교육과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회에서 1971년 1월 시안을 확정 한 뒤 2년간의 실험 평가를 거쳐,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 공포된 것이 제3차 교육과정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① 국민적 자질의 함양, ② 인간 교육의 강화, ③ 지식과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일반 목표를 구체화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아 발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의 32개 항을 제시하였다. 기본 개념의 이해와 지식의 구조적 학습 및 탐구의 능력을 중시한 이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사조를 받아들였으나, 그 내용이나 형식은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적 있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국화된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8) 1963. 2. 15. 개정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 활동의 영역을 ① 학생의 개인 능력에 따른 개성 신장에 관한 것, ② 개인의 취미 향상에 관한 것, ③ 직업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것, ④ 민주적 집회 운영과 생활 태도의 양성에 관한 것 등으로 요약해 놓고 있었으나, 1969. 9. 4. 문교부령 제251호로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① 학급회 활동, ② 아동회 활동, ③ 클럽 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학교 행사는 특별 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며,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의 총론은 1969년에 보고된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반영하여, 1970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과 여론 조사를 거쳐 개정 방침을 세우고 초안을 작성하였다.⁹⁾ 이 초안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한 것을 여론 조사 후 다시 각급 심의회에서 조정하여 1971년 1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시안 확정 후,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 소규모 실험 및 준비 기간을 거쳐 1973년에 문교부령으로 제3차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당시, 문교부는 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과정 원안의 심의 등을 담당하는 자문기구를 두었으며 이 기구는 운영 위원회, 학교별 위원회 및 교과별 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사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브루너(Bruner, J. S.)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곧 ‘각 교과의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된 배경은 스포트닉 충격으로 인한 생활 또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에 의한 교육 내용의 선정 문제,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한 탐색의 결과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자발적인 탐구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식의 탐구 과정은 학생 경험의 총체 중의 특수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정면으로 대립되지는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 중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에 나타나 있으며, 특히 수학, 과학, 사회 교과 등에 잘 나타나 있다.¹⁰⁾ 학문 중심 교육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된 것은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이었다. 1960년대 이후 주체성을 강조하여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1968년에 국민 교육 현장이 제정·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①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개인 윤리면), ②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③ 국민 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었다.

나. 구성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등 세 가지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①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① 가치관 교육의 강화, ②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③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식·기술을 쇄신하기 위해서, ① 기본 능력의 배양, ② 기본 개념의 파악, ③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④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9) 제3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킨다.
- ②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③ 교과의 편제를 재조정하여 「반공·도덕 생활」을 「도덕」으로 하고 교과화한다.
- ④ 학년별 주당 시간을 중배한다.

10) 기본 개념의 파악 :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학교 교육의 일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제시된 정신을 학교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이 제시되어 있었다.¹¹⁾

제3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 그리고 구성 방침에 나타난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교육이 지향할 좌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의 교육 방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침 또는 지표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둘째, 다가올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서구화·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제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 있는 교육과 한국인상 정립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 주체 의식을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의 소외, 도시화에 따른 지식·정보량 및 그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적 탐구 방법을 강조하고 과학적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생산에 적용시키기 위해 산학 협동을 강화하는 것은 그 당시 다가올 미래 상황에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함으로써 명실 공히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와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하고 내용의 선택에서 기본 개념과 학문의 원리 및 기초 이론을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 하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방법 면에서 암기 위주나 단순한 경험의 습득만이 아니라 발견, 탐구의 과정과 기본 개념 이해 과정을 강조하였다.

넷째,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올바른 국가관, 국민 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가 깊게 반영되어 있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교육 목표에 반영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기본 방침이나 목표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가 성격상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각의 핵심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하게 나열되었다는 점, 각각의 목표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11)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 ①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정선하되 학습의 지속적인 신장을 기하고, 학습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②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선정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 및 경험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의 계통성과 발전성이 뚜렷하도록 한다.
- ③ 각 교과와 특징에 따라 그에 가장 알맞은 학습 방법을 전개할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조직한다.
- ④ 지역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보다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기본적인 학습 내용의 선정은 학년 간, 학교 간의 연계성과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을 긴밀히 하도록 한다.

제3차 교육과정은 체제 면에서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을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2차 교육과정보다 단순화·체계화되었다. 각론에서도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목표는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로 학년 목표를 진술하고 있어 그 위계와 체계를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제면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도덕과가 교과로 독립함에 따라 교과는 총 9개가 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도덕’과와 함께 ‘국사’도 교과로 독립하였으나, 국민학교에서는 종전대로 사회과 내의 국사 분야로 유지하되, 5·6학년에서 국사 부분의 내용을 따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시간 배당면에서는, 주 단위로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하여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했던 기존의 과정과는 달리, 교과별·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단, 괄호 안에 주당 시간 표시)으로 단일화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과정에서 이수의 범위를 설정해 둔 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학년별 수업 시수의 계가 고정되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당시 교육 현실이 교과 담임제가 아니고 학급 담임이 전 교과를 단일의 국정 교과서로 지도하고 있었으므로 범위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다. 연간 수업 시수로 표시한 것은 주당 시수로 표시함으로써 요일에 따라 수업이 빠져 교과별로 수업 시간이 기준을 넘거나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수업 시간 단위를 40분 또는 45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1~6학년의 성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표 7>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73. 2. 14.)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 덕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국 어	210 (6)	210 (6)	210 (6)	210 (6)	210 (6)	210 (6)
	사 회	70 (2)	70 (2)	105 (3)	105 (3)	140※ (4)	140※ (4)
	산 수	140 (4)	140 (4)	140 (4)	140 (4)	175 (5)	175 (5)
	자 연	70 (2)	70 (2)	105 (3)	140 (4)	140 (4)	140 (4)
	체 육	70 (2)	105 (3)	105 (3)	105 (3)	105 (3)	105 (3)
	음 악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미 술	70 (2)	70 (2)	70 (2)	70 (2)	70 (2)	70 (2)
	실 과				70 (2)	70 (2)	105 (3)
	계	770 (22)	805 (23)	875 (25)	980 (28)	1,050 (30)	1,085 (31)
특별 활동		35~ (1~)	35~ (1~)	52.5~ (1.5~)	52.5~ (1.5~)	52.5~ (1.5~)	52.5~ (1.5~)

※ 사회과 5, 6학년 시간 배당 140(4) 중, 70(2) 시간은 해당 학년의 국사 부분에 배당한다.

(출처) :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 2. 14.

특히, 교육 내용에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종래의 생활 수학을 탈피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1차와 제2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 2학년의 학습 활동은 ‘가급적 관련 있는 교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아동회 활동, 학교 행사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이 ‘부령’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1979년 3월 1일자로 ‘문교부 고시’로 변경하여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변화시킨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제3차 교육과정은 1, 2, 3학년은 1973년, 4, 5, 6학년은 1974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사회과는 1973학년도부터 전 학년이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6.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1981~1987)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문교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던 종래의 방식을 벗어나 문교부 장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개발 과제를 위탁하여 기초 연구와 총론, 각론 시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의 형태’를 도입하였다는 것이 교육과정 정책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면서¹²⁾, 단일한 교육 사조나 교육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80년 당시의 정치·사회적 특수 상황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는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한 후,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1980년 9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¹³⁾

그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종래의 교육 방송 및 기초 교육 연구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던 연구 업무 영역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계 연구로 확장시키고 1978년부터 교육과정 기초 연구에 이미 착수하고 있었는데, 특히 새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초 연구를 끝내고 많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¹⁴⁾,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당시까지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1980. 12. 31.)와 총론 시안(1981. 3. 31.)을 문교부에 답신 보고하였다. 이 답신 보고를 기초로 하여 문교부에서는 총론 시안에 대한 심의(4. 1~30.)와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각론에 대한 심의(8. 1~31.)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11. 20.), 2차 심의회(교과별, 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1981년 12월 31일자로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제4차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은 제3차 교육과정이 지닌 ① 학습 내용의 과다, ② 학습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 ③ 교과목

12)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110집, 1979, p. 1 및 문교부, 국민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82, p. 4.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이다.”

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개정안(총론)의 연구·개발—답신 보고서, 1981, p. 3.

14) 예를 들면,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1978), 교육과정 국제 비교(1979),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 (2), (3), (4)(1980),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1979),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1979),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197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1980) 등이다.

위주의 분과 교육, ④ 기초 및 일반 교육의 소홀, ⑤ 전인 교육 및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면에서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1980년의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 방향 전환에 대한 대책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기초 교육·일반 교육 강화,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강화), ②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과열 과외의 잠재 요인 제거), ③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국민학교 교육 목표·내용의 체계화,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 반영) 등을 개정의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어느 특정한 교육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지 않으며 종합적이고도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제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의 정신과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회적·학문적인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교육과정이라는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나. 구성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① 민주주의 토착화, ② 복지사회의 건설, ③ 정의사회의 구현, ④ 교육 혁신과 문화 창달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민주·복지·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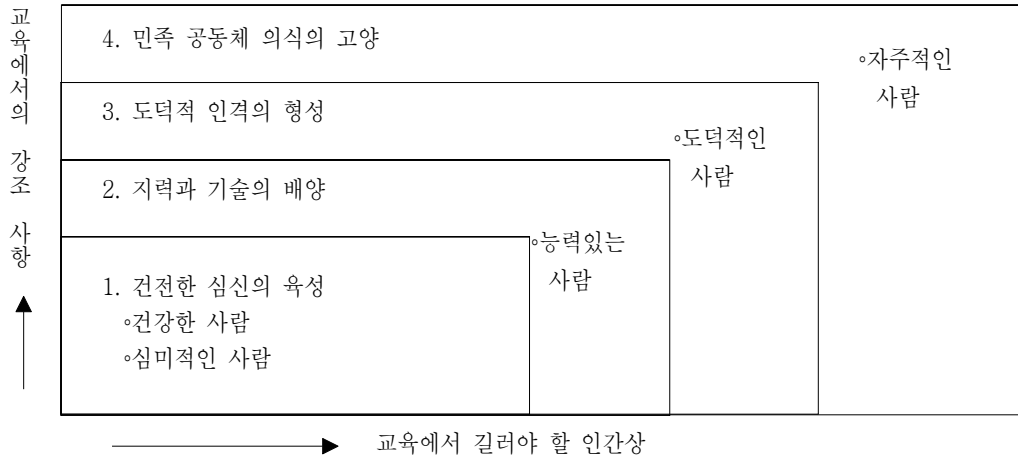
따라서 학교 교육은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초기에는 통합적인 교육 경험의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차 이를 확대, 심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특히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⁵⁾

제4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과의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15) 제4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 | | |
|--------------|-----------------------|
| ① 건전한 심신의 육성 | ③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 ㉠ 건강한 신체 | ㉠ 주체적인 자아 의식 |
| ㉡ 풍부한 정서 | ㉡ 정직성과 성실성 |
| ㉢ 고상한 취미 | ㉢ 자율성과 책임감 |
| ㉣ 강인한 의지 | ㉣ 공정성과 질서 의식 |
| ㉤ 심미적인 태도 | ㉤ 인간 존중 태도 |
| ② 지력과 기술의 배양 | ④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
| ㉠ 기본 학습 능력 | ㉠ 사회적 연대 의식 |
| ㉡ 과학적 탐구 능력 | ㉡ 민주·복지·정의 사회 건설의 사명감 |
| ㉢ 기초 지식과 기술 | ㉢ 투철한 국가 의식 |
| ㉣ 문제 해결력 | ㉣ 민족 문화 창달 의욕 |
| ㉤ 진로 개척의 능력 | ㉤ 인류 공영 의식 |



[그림 1] 인간상과 교육과정 강조 사항과의 관계

특히,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포괄적인 상위 목표와 구체적인 하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국민학교의 교육은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 ①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한다.
- ②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③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 ④ 자연과 사회의 이해를 위한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고, 지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 ⑥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4차 교육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으로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전망에 비추어 본 국민적 과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그리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 그리고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표 8>을 살펴보면,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세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표 8> 제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81. 12. 31)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활동	도 덕	374 (11)	374 (11)	68 (2)	68 (2)	68 (2)	68 (2)
	국 어			238 (7)	204 (6)	204 (6)	204 (6)
	사 회			102 (3)	102 (3)	136 (4)	136 (4)
	산 수	204 (6)	136 (4)	136 (4)	136 (4)	170 (5)	170 (5)
	자 연		68 (2)	102 (3)	136 (4)	136 (4)	136 (4)
	체 육	204 (6)	238 (7)	102 (3)	102 (3)	102 (3)	102 (3)
	음 악			68 (2)	68 (2)	68 (2)	68 (2)
	미 술			68 (2)	68 (2)	68 (2)	68 (2)
	실 과				68 (2)	68 (2)	68 (2)
	계	782 (23)	816 (24)	884 (26)	952 (28)	1,020 (30)	1,020 (30)
특별 활동				34~ (1~)	68~ (2~)	68~ (2~)	68~ (2~)
총 계		782 (23)	816 (24)	918~ (27~)	1,020~ (30~)	1,088~ (32~)	1,088~ (32~)

(출처) :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p. 94.

시간 배당은 통합 교과서에 의한 교과와 통합 운영을 위하여 1, 2학년의 교과 활동 시간을 2~3교과를 합쳐서 시간을 배당한 것이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시간을 학년별·교과별로 표시하고, ()안에 주당 평균 시간을 표시하였는데, 교과 활동 총 이수 시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을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기초적인 언어 기능의 강화를 위해 1, 2, 3학년의 국어 시간을 늘리고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교과 활동은 교과 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1, 2학년은 교과 간의 통합을, 3학년 이상은 분과를 원칙으로 배당되었으며, 특별 활동 시간은 3학년 이상부터 배당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특히, 1, 2학년에서의 교과 간의 통합 시간 배당은 실제 운영에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를 탄생시켜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교과의 길을 열었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1, 2, 3학년에 시행되었고, 도덕과·사회과를 제외한 4, 5, 6학년의 교육과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KBS 1TV를 통해 전국적인 교원 연수가 시행된 점은 초등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기록되었다.

7.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1987~1992)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① 기초 교육의 강화,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제4차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1987년 6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개정된 것이 제5차 교육과정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문서화된 개괄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의하면서¹⁶⁾, 단일한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개인적, 학문적, 사회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1982년 3월 1일부터 제4차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문교부는 제4차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적용 실태를 분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장 실태 조사를 토대로, 1983년도부터는 현행 교육과정 분석·평가 연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학생·교원·학부모 대상의 요구·의견 조사, 국가·사회적 요구와 전망 조사 등의 기초 연구를 문교부 교과 담당 편수관실과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3년간 추진한 후, 1985년 6월 17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기본 계획을 통보하였다. 그 후,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1986년 2월 19일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과는 달리 문교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의뢰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적정화·내실화·지역화를 제5차 교육과정 개정 방침으로 정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위해 ① 이수 과목의 축소, ② 학습량과 수준의 적정화, ③ 교과목의 조정, ④ 개발 과정의 효율화 등을 꾀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① 교육 목표의 상세화, ② 교육 내용의 정선, ③ 지도서의 실용화, ④ 평가 방법의 다양화 등을 꾀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 ① 교과용 도서의 2중화, ② 교과 단원의 지역화, ③ 교재 활용의 다양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화 등을 꾀한다.

제5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은 교육의 내외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학문적·개인적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었으나, 당시의 국가·사회적인 변화는 ① 경제적인 발전, ② 민주화의 정착, ③ 정보 사회의 도래, ④ 국가 경제 및 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에서 새로운 개선을 바라는 교육 내적인 요구가 더욱 강하게 대두되었다.¹⁷⁾

16) 첫째, 문교부가 국가수준에서 학교 교육 내용의 기준으로 문서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제시해 놓은 제정·공포된 교육 내용이다.

둘째,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 지도 내용, 수업 시간, 학습 지도 및 평가 등의 지침이 계획적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는 의도적 교육 내용이다.

셋째,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전체적인 교육 내용이다.

17) ‘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문교부 교육과정 담당관실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개정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가 국제화·정보화·다양화 하여감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는 ‘주체성’, ‘창조성’, ‘도덕성’이 강조되었으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그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의 분석은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제5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는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사회 정의가 구현되며, 국민의 복지가 실현되고, 문화의 주체성이 확립된 민주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문화사회로 전망되었다. 한편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은 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②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나.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 정의사회, 복지사회, 문화사회로 전망하면서, 학교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으로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운영 면에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흔히 개인차를 말할 때 양적인 면의 개인차와 질적인 면의 개인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양적인 면의 개인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학습자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 능력, 태도를 제대로 습득한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 양적인 개인차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와 병행해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개성화,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질적인 개인차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학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것은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도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개성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적,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편제, 시간 배당, 목표 및 내용 선정 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초적, 기본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국민학교 저학년에서의 국어, 산수과의 독립, 특히 국어과의 언어 영역별 독립 교과서 편찬, 중학교의 수학·과학과의 강화, 고등학교의 공통 필수 교과목의 합리적 조정 등은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추가, 보완하였다. 현재 학교 교육의 대상자는 모두 21세기에 살게 된다.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교육 내용 방법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물질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며, 정보가 중요한 가치와 효율성을 지니는 사회로 변모할 전망이다.

-
- ②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 ③ 현행 교육과정 공포 이후 7년 경과
 - ④ 국제 경쟁력의 강화
 - ⑤ 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
 - ⑥ 교육 환경의 개선,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개발

지금까지의 물질 생산력 증대에 따른 사회 변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달과 일상화에 따라 주체성, 창조성, 사고력, 판단력, 정보 처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함양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실과에 컴퓨터의 기초, 중학교의 기술·가정에 컴퓨터의 원리와 이용을 새로 편성하고 고등학교에 정보 산업 과목을 신설한 것, 모든 교과목에 걸쳐 주체성과 창조성·사고력 등을 강조한 것,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에서 경제 교육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강조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이다.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법적인 문서로서만 존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향도 있었다. 심지어,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고시된 교육과정을 외면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법적 문서로서 고시된 교육과정이 매우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고, 중·고교의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의 교과서가 단일 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료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내용, 교과서 및 생활 기록부 양식 등과의 불일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지나친 경직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획일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의 제한은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민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과 전 학년에 걸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교육 내용의 지역화 운영, 고등학교 단위 배당에 있어서 기준 단위제의 도입, 중·고교 교과서 편찬 시 학습량의 기준 제시 등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중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6개 항목의 포괄적인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 ①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보건과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한다.
- ②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 ③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④ 자연과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탐구,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한다.
- ⑤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꿀 줄 알며, 경험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 ⑥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근검절약하는 태도를 길러,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게 한다.

위와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제4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 보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급 학교의 성격에 따라 교육 목표를 보다 명료화시킨다.

셋째, 우리나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이고 건강한 인간상에 기초한 역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

넷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교육 목표의 일관성과 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섯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과 활동 및 특별 활동의 학습 내용과 경험을 선정하고 지도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제5차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는 고시문,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와 편제, 각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은 교육과정의 전문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 ①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과 목적
- ②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이 주력해 온 점
- ③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 ④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 특성, 인간상
- ⑤ 기대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역점 사항

이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나타난 교육 이념과 미래 사회의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립한 것으로서, 각급 학교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① 기초 교육의 충실,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네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따라서 편제와 시간 배당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① 1, 2학년에서 통합 교과 신설
- ② 통합 교과서에서 1, 2학년 국어, 산수의 분과 독립
- ③ 연간 수업 시간 수의 증가
- ④ 주당 수업 시간 수의 합리적 조정 운영
- ⑤ 특별 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

그 밖에도 국어 교과서의 언어 기능별 독립 교재 편찬에 따른 시간 배당,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의 발간·보급에 따른 활용 시간 조절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 함께 인간 교육의 실현, 아동의 발달 수준 고려, 교과 내용상의 중복 해소, 교육과정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 등의 측면에서 통합 교육과정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통합 교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비록 1, 2학년으로 한정되었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분과 구성되어 있으면서 교과서만 통합되어 있던 것을,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수리 기능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와 ‘산수’는 통합 교과서에서 분리, 독립시키고, 나머지 교과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바른 생활’, ‘즐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 등의 통합 교과를 신설하여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당 시간은 평균 시수인 점에서 고정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즉,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셈하기의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기초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언어, 수리, 사고, 탐구·관찰 능력 신장 자료를 개발, 보급하게 되었다.

특히, ‘1교과 1교과서’라는 종래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교과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개발,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과정 개정사나 교과용 도서 개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만하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로 가르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교과서를 절대적 권위의 원천으로 보던 시대는 지났으며, 교과서는 학습을 위한 도구, 즉 하나의 교육과정 자료집으로 보게 되었다.

국어 교과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세 종류로서 언어 기능별로 편찬되어 모두 주 교과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바른 생활’이나 ‘도덕’의 ‘생활의 길잡이’는 도덕적 판단,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생을 위한 철학 교재 또는 생각하는 읽을거리나 자료를 제공해 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산수의 ‘산수 익힘책’은 보충·심화 또는 워크북이나 배움책의 구실을 하며, ‘슬기로운 생활’과 자연의 ‘관찰’, ‘실험·관찰’은 자연 현상의 탐구, 해결을 위한 최저 필수 학습 요소(minimum essential)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학습의 효율화를 위해 지도 교사 재량으로 보충 교재나 심화 발전 교재를 만들어 온 것을 국가수준에서 대폭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재의 다양화와 풍부화는 교육 내용의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재와 학습 자료의 보충·지원을 의미하므로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2학년의 교과 활동의 평가 결과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교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법정 장부인 ‘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기재하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 평가의 본질을 찾고자 한 조치라고 하겠다.

평가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 교과와 특성이나 평가의 대상에 따라 지필 검사, 누가 관찰 기록, 질문지법, 실기 평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총괄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 지도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을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고친 이유는 수량적 평가 기술에 따른 점수화, 서열화의 경향을 지양하고, 학생의 장점을 찾아 문장 서술식으로 평가, 기록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라 하겠다.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운영의 유의 사항을 최초로 일반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하게 된 점도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은 이원적 구조로 제시하여, 1, 2학년의 교과 구조를 명확히 하였다.

<표 9>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87. 6. 30.)

구 분		학 년		1학년		2학년	
교과 활동	국 어	우리들은 1학년	70	210(7)	238(7)		
	산 수			120(4)	136(4)		
	바 른 생 활			120(4)	136(4)		
	슬기로운 생활			60(2)	68(2)		
	즐거운 생활			180(6)	238(6)		
특 별 활 동				*30(1)	*34(1)		
계				790(24)	850(25)		

구 분 \ 학 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활동	도 덕	68(2)	68(2)	68(2)	68(2)
	국 어	238(7)	204(6)	204(6)	204(6)
	사 회	102(3)	102(3)	136(4)	136(4)
	산 수	136(4)	136(4)	170(5)	170(5)
	자 연	102(3)	136(4)	136(4)	136(4)
	체 육	102(3)	102(3)	102(3)	102(3)
	음 악	68(2)	68(2)	68(2)	68(2)
	미 술	68(2)	68(2)	68(2)	68(2)
	실 과		68(2)	68(2)	68(2)
특 별 활 동		68(2)	68(2)	68(2)	68(2)
<표 계속> 계		952(28)	1,020(30)	1,088(32)	1,088(32)

(출처) :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6. 30., pp. 4~5.

8.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1992~1997)

우리나라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한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지방·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1992년 9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로 개정된 것이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이었다.

시대적·학문적·개인적인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이 그 목적이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체제를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 그 핵심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하여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법규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¹⁸⁾

가. 개정의 경과

제6차 교육과정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특별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기초·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1990년 3월부터 교육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

18)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이 교육과정은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교육법 제30조) 및 교육 목표(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이다.
- ② 이 교육과정은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1987. 6. 30.)을 개정한 것으로,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1995학년도부터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③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편성·운영 지침은,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호에 의거,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하여 시행한다.

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및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6월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연구 책임자 : 동국대 교수 한명희)를 구성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는 39명의 학자·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교육부 편수 담당자 43명, 현장 교원 411명, 교수 41명, 기타 전문가 26명 등 총 521명의 협의·자문진이 참여해서 1991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230명 참가),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2회 112교),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530명 참가), TV 공개 토론회(3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126회),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조사(시·도 교육청, 교원 양성 대학, 연구기관, 연구학교 관련 학회 등 60개 기관)가 실시되어 각계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다시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에 회부되어 면밀하게 심의되었다(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 : 16개 위원회, 심의 위원 361명, 2회 심의 실시).

심의를 마친 시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원 등과의 합동 집중 작업,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최종 집중 작업을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제6차 교육과정의 총론으로 먼저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교과별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는 제1차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전통적 기본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가 1991년 5월에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었다. 기본 교과의 각론 개정 연구가 총론 확정 이전에 위탁된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귀납형과 연역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로서 교과 편제 연구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과 교육 전문가의 상호 작용과 협동 연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러한 5개의 기본 교과 외에 기타 교과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각 교과 교육 전문 연구기관(12개 기관)에 1991년 10월에 개정 연구를 위탁하여 1992년 4월말까지 추진되었다. 교과별 각론 개정 연구에는 교수, 연구원, 현장 교원, 교육부 편수 담당자 등 550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협의진 1,218명, 자문진 178명을 합해 1,946명의 교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개정 연구 결과를 접수하여, 19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23분과, 2,930명 참가)를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개정 시안을 송부하여 검토 의견(179개교, 8,134명 검토)을 종합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 91개 기관에도 개정 시안을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과별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159개 위원회, 심의 위원 2,512명)에 개정안을 회부하여 2~3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병행하였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교과 교육 전문가 및 현장 교원(769명)의 합동 집중작업을 거쳐 수정·보완한 후, 다시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최종 정리 작업을 했으며, 수정·보완된 개정안은 다시 교육과정 심의회(학교급별 소위, 운영위)에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되었다.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종합 검토회(1992. 9. 4.)와 각 시·도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검토회(1992. 9. 17.)를 가졌다.

이상과 같은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검토, 수정, 보완 정리 작업을 거쳐 1992년 6월 30일에는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을 고시하였고, 1992년 9월 30일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5호)과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을 고시했으며, 1992년 10월 30일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9호)의 고시를 끝으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학교 제6차 교육과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는 1, 2학년, 1996년 3월 1일부터는 3, 4학년, 1997년 3월 1일부터는 5, 6학년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교과서와 지도서 등의 교과용 도서 개발에도

착수하게 되었다.

나. 구성 방침

제6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택하여 제반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 입장으로 접근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거하여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¹⁹⁾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교육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본다.”

제6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설정되었다. ‘건강한 사람’이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은 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자주적인 사람’이란, 주체적 자아의식을 지니고, 개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사람을 말한다. ‘창의적인 사람’이란, 새로운 생각을 해 내는 사고력과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겨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도덕적인 사람’이란, 분명한 가치 체계와 판단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관용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상과 구성 방침을 토대로 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던 체제를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 활동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에만 그 의의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의 공통적·일반적·표준적·대강적·요강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는 물론이고, 각 학교의 특성,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 그리고

19)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I),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3), p. 7.

각 지역의 교육 기반 등의 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일선 학교가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급 학교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당해 학교의 학생 실태,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구성, 학교의 시설,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상세화하고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실용성 있게 구성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 진술 체계를 대폭 쇄신하였다.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내용,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으로 제시된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체계를 바꾸어, 각 교과목별 성격을 분명히 밝혔고, 내용 체계를 새로 일목 요연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학년 목표를 폐지하고, 지도 방법과 평가의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을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으로 전환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접근시킴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제6차 교육과정의 기본적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제6차 교육과정의 구조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① 교육과정의 성격, ②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③ 편제, ④ 시간 배당 기준, 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등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는 국민학교의 교육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표 10>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1992. 9. 30.)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 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수 학	120	136	136	136	170	170
	사 회	슬기로운 생활 120 136		102	102	136	136
	자 연			102	136	136	136
	체 육			102	102	102	102
	음 악	즐거운 생활 180 238		68	68	68	68
	미 술			68	68	68	68
	실 과	-	-	34	34	34	34
특 별 활 동		30	34	34	68	68	68
학교 재량 시간		-	-	34	34	34	34
연간수업시간수		790(70)	850	952	986	1,054	1,054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임(1학년은 30주로 함).

② 1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③ 1학년 연간 수업 시간 수 790 시간 중 (70)시간은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에 배당하여야 함.

(출처) : 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2. 9. 30., p. 2.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편제는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역화,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이다. 1, 2학년의 교과는 바른 생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고,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우리들은 1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재 개발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3~6학년의 교과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교과로 하였다. 각 학년별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34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만 제시한 것은 학교에서의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구분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였고, 평가와 기타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제시하였다.²⁰⁾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으며,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 학습 과제를 많이 제시하여 어린이들부터 소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한 점이 특색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바른 생활과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천 위주의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교육은 1, 2학년의 바른 생활뿐만 아니라 3학년부터 도덕과 및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의 전체 생활에 걸쳐 습관화되도록 강조하였다.

둘째, 저학년의 통합 교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1, 2학년의 통합 교과는 유치원 교육과 연계를 중시하면서 3학년의 교과 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으로서의 특징이 나타나도록 개정하였다. 이전 교육과정기에서 도덕과 사회 요소를 포함하여 통합한 것과는 달리, 개정된 ‘바른 생활’과에서는 사회 요소를 ‘슬기로운 생활’로 편입시키고, 저학년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 예절, 기본 생활 습관, 공중 도덕, 안전 교육, 환경 교육 등이 각 영역에 통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새로운 교과로 구성하였다.

‘슬기로운 생활’은 주변의 여러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새로운 교과로 구성하였다. 이것을 통해 사회와 자연 분야에서 국민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요 개념과 탐구 과정, 생활 규범, 노작, 공작 등과 관련된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3학년의 자연, 사회, 실과 등의 교과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우리들은 1학년’은 국가수준에서 그 목표와 내용을 획일적으로 제시한 데서 벗어나, 지역별로 신입생들의

20)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① 지역의 특수성, 학교·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의 반영 및 이에 따른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교과와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④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 및 학교 재량 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자료에 관한 사항
- ⑥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⑦ 특수아 교육에 관한 사항
- ⑧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 ⑨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⑩ 기타 필요한 사항

생활 경험, 성장 배경, 능력 수준, 지역 실정,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생활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알맞게 구성하도록 내용 구성 및 운영권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였다.

셋째, 고학년의 수업 시간을 감축하였다.

4, 5, 6학년의 수업 시간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하였다. 4학년은 주당 수업 시간을 30시간에서 29시간으로 1시간 감축하였고, 5~6학년의 주당 수업 시간을 32시간에서 31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감축하였다.

넷째, 기초적인 생활 기능과 태도 교육을 강화하였다.

실과 교육을 농업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꾸고, 컴퓨터 영역을 추가하여 실용성을 추구하였으나 일상 생활과 밀착된 노작 활동과 실천적 학습을 통하여 현대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생활 기능 교과로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4~6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배당된 것을 1시간씩으로 축소하는 대신 3학년부터 이수하도록 확대하고, 그 내용면에서도 노작 활동과 실생활 중심의 내용으로 전면적 개정을 하였다. 또한, 1, 2학년에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 등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그 밖의 학년은 자연, 미술,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을 활용하며, 특히 기르기 영역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교육 현장에 부여하여 학교생활 전반에서 실천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학교 재량 시간을 신설하였다.

지역 실정에 알맞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거나, 교재(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은 물론,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학교 재량 시간은 당해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게 되는 시간으로 ① 편제에 제시된 교과의 보충·심화 시간, ② 특별 활동의 보충·심화 시간, ③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요구에 알맞은 교육 내용과 활동을 실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

여섯째, 산수를 수학과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늘날의 수학은 수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도 수학(mathematic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즉, 계산 중심의 지도 내용에서 논리·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변화하는 수학 교육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라. 부분 개정

세계화 및 교육 개혁의 시대적 요청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전국의 국민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육과정 중 총론의 내용을 부분 개정하고, 최초로 국민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정하게 되었다.²¹⁾ 제6차 교육과정의 첫 시행 연도인 1995년 3월부터 초등 영어 교육 시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부분 개정 기초 연구, 공청회,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심의·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1995년 11월 1일 교육부 고시 제1995-7호로 제6차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 고시하였다. 부분 개정된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영어를 정규 교과로 신설하고, 3·4·5·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의 수업 시간을 배당하여 1997학년도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교과는 10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처음 제정된 국민학교 영어 교육은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 신장을 목표로,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 언어 교육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문자 교육은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지도하되, 저학년에서는 문자 인식 수준으로 제한하고, 고학년에서는 음성 표현의 이해를 돕는 보조 수단

21) 국민학교에서의 영어 교과 신설에 따른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된 바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갖춘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에 필수적이라는 국가·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를 도입하게 되었다.

으로서 문어적 표현을 다루게 하였다. 어휘는 총 500낱말 내외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어 교과에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기초적인 생활 영어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영어 교과서는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2종 도서(검정)로 개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1995년 11월 25일 검정 공고를 한 후, 1996년 10월에는 12종류의 검정 교과서가 합격하여 1997년 3월부터 3학년 교과서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학교에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것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국민학교 영어 교육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교원 양성·연수 및 전담 교사 배치,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 조성 과 교육 투자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 11> 제6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1995. 11. 1.)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도 덕	바른 생활 60 68		34	34	34	34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수 학	120	136	136	136	170	170
	사 회	슬기로운 생활		102	102	136	136
	자 연	120	136	102	136	136	136
	체 육	즐거운 생활		102	102	102	102
	음 악			68	68	68	68
	미 술	180	238	68	68	68	68
	실 과	-	-	34	34	34	34
	영 어	-	-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학교 재량 시간		-	-	0~34	0~34	0~34	0~34
연간수업시간수		790(70)	850	986~1,020	1,020~1,054	1,088~1,122	1,088~1,122

- ① 이 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시간 수입(1학년의 교과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임).
- ② 1단위 시간은 40분을 원칙으로 함.

<찬성의 근거>

- ① 국가 사회적 필요 :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 ② 개인적 필요 : 외국어 실력은 개인 기업, 국가 발전에 필수적임[* 코리아 리서치(1995. 2.): 88%]
- ③ 국민적 여론에 부응해야 할 필요 : 정규 교과화에 찬성 68%(코리아 리서치, 1995. 2.), 정규 교과화에 찬성 80%(한국교육개발원, 1995. 2.)
- ④ 현행 영어 교육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국가적 낭비의 심각성을 최소화할 필요 : 1995년 5월 약 90%의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 실시
- ⑤ 도시·농촌 간 학력(영어) 격차의 심화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
- ⑥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필요
- ⑦ 조기 영어 교육의 세계적 현상에 부응

<반대의 근거>

- ① 문화 사대주의와 가치관의 혼란 초래
- ② 국민학교 기초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 약화
- ③ 영어 외의 타 교과목 학습의 소홀
- ④ 교사의 교수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 증대
- ⑤ 초등 교육 전반, 기존 중등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 여건상의 차질 발생
- ⑥ 대도시와 농·어촌 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 격차 발생
- ⑦ 영어 과열 과외 초래
- ⑧ 외국어로서 영어(EFL)를 학습하는 상황에서의 조기 영어 교육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
- ⑨ 교원 수급, 교재 개발, 시설·설비 등의 문제점 발생

③ 1학년 연간 수업 시간 790시간 중 (70)시간은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3월)에 배당하여야 함.

④ 영어 교과는 1997학년도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함.

⑤ 학교 재량 시간에 배당된 0~34는 학년별 연간 최소 시간 수가 0 또는 34시간을 의미함.

(출처) : 교육부 고시 제1995-7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5. 11. 1., p. 2.

9.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1997~2007)²²⁾

가. 개정의 배경²³⁾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 개혁 위원회 내에 「교육과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 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골격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1996년 2월 9일에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고, 세부 개정 지침으로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 ②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④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등 지원 체제 확립을 제시하였다.²⁴⁾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는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 전망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 온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개혁을 요구하였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부는 1996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체제·구조 개선 기초 연구, 교원·학생·학부모의 개정 요구 조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²⁵⁾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22)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경환, 박세운, 권영민(2002)의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pp. 154~203에서 초등학교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3) 교육부,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연수 자료, 1998. pp. 3~6.

24)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 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 1996. 2. 9. 제3차 대통령 보고서, pp. 38~52.

25)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서 1996년에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1996) 위탁 과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수준별 교육과정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심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등 14개 기관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으며,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 검토, 심의 및 수정·보완을 거쳐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 및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과 아울러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가 교육 목표 실현에 더욱 중요한 변인이 되었다.

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하에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표방하였다.²⁶⁾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을 바꾸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교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 교과 중심의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의 10개 교과로 구성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편제에 과목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에 과목군 개념을 도입하여 10개의 기본 교과를 5개의 과목군으로 분류하였다. 과목군의 도입은 동일 과목군 내에서 과목 간의 중복이나 비약을 예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통합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할 때 특정 교과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에 따른 과정 안내의 역할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2년간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연인원 14,332명이 참여하였고, 연 228회의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교육과정 심의회 내의 127개 소위원회에 1,786명의 심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26) 이경환,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개정’, 교육부 ‘교육월보’, 1997. 4월호, pp. 68~70 및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방향, 교육진흥 제36호, pp. 8~11.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별 특징 또는 교과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단계의 특징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그리고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재량 활동을 신설, 확대하였다.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였다. 국가와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교육 목표 성취의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창의성과 정보 능력 배양을 강조하였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컴퓨터 교육 내용을 모든 교육 활동에서 강화하도록 하였다.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 및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컴퓨터 교육 내용을 다루고, 중학교 선택 과목으로 ‘컴퓨터’를,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정보 사회와 컴퓨터’를 개설하였다.

다. 구성 방침

(1)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따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²⁷⁾

“이 교육과정은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2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997. 12. 30.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2) 추구하는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 목표

이상과 같은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라.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1) 편제의 특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특히, 학습 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기본예절, 질서, 청결,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강화한 점이 특색이다. 초등학교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첫째, 기본적 언어 능력, 수리적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기본 생활 습관 등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둘째, 1, 2학년의 통합 교과 운영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 개념에서 탈피하여 활동 중심 주제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교과 개념을 재정립하고, 열린 교육 체제를 확립하였다.

셋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과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간의 교과 수의 격차를 없애고, 교수·학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3, 4학년은 9개 교과로 편성하였다.

넷째, 실습중심의 실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과 시간을 5, 6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였다.

다섯째,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 내용을 선정·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전반적으로 감축 조정하여 교수·학습 부담을 경감시켰다.

여섯째, 교과별 및 영역의 명칭과 편제의 교과 제시 순서를 학년제와 과목군 개념 도입에 따라 학교급별로 일관성 있게 조정하였다. ‘자연’과 ‘영어’ 교과는 ‘과학’과 ‘외국어(영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일곱째,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재량 활동을 확대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 3~6학년에 주당 평균 0 또는 1시간으로 배정되었던 ‘학교재량시간’을 ‘재량 활동’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 2학년에서는 주당 평균 2시간을 신설하고, 3~6학년은 주당 평균 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여덟째, 특별 활동은 6차 교육과정에서 학급, 학교, 클럽 활동 등 집단 중심으로 영역을 설정한 것과 달리, 활동내용 중심으로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활동 내용은 ‘예시적 기준’으로서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학교에서 선정·재구성하도록 하였다.

<표 1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학 교	초 등 학 교				
		1	2	3	4	5	6
교 과	국 어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도 덕			34	34	34	34
	사 회	수 학 120 136		102	102	102	102
	수 학			136	136	136	136
	과 학	바른 생활 60 68		102	102	102	102
	실 과	즐거로운 생활 90 102		.	.	68	68
	체 육	즐거운 생활 180 204		102	102	102	102
	음 악			68	68	68	68
	미 술	우리들은 1학년 80 .		68	68	68	68
	외국어 (영어)			34	34	68	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2.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3.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2) 운영상의 특징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의 역할 분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정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지역 교육청과 교사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1) 시·도 교육청의 역할 증대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지침 작성 시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2) 지역 교육청의 역할 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교육청에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고, 특히 지역 교육청은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관내 학교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3) 학교의 역할 증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에 따라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 등을 근거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적절한 실행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자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고,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과 방법, 특색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4) 교사의 역할 중시

학교 현장에 주어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서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는 교사의 역할 정도에 달렸다. 교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 자료, 당해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담당 교과와 연간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따른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결국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따라 구체화되어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차별화,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주적 생활 능력과 평생 학습의 태세를 갖춘 유능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주요 관점은 “가장 좋은 교육은 학생의 개인차가 충실히 고려되는 교육이며, 교육의 개별화는 교육 선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 선택형 등 세 가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초등학교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과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6단계로 단계화하며,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각 하위 단계는 심화·보충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 교육 내용과 심화 내용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국어, 사회, 과학, 초등 영어 교과에 적용하되 국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초등 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도록 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학교의 학습 집단 편성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㉔) 재량 활동의 신설·확대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재량 활동은 1, 2학년에서는 신설되었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확대됨으로써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 재량권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되어,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재량 활동 수업 시수는 학년별 연간 68시간(1학년은 60시간)이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²⁸⁾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의 운영은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²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특히,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정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교과에서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의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른 창의적 재량 활동에 증배, 활용하되,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㉕)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특별히 강조된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 수준에 분담된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 수준

○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한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28)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교사의 지도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29) 범교과 학습이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가운데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의 영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할 영역의 선정은 학교 실정, 사회적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수준

○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할 때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 지역 교육청에서는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때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3) 단위학교 수준

○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마. 수시 개정 체제에 의한 부분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전환에 따른 제7차 교육과정기의 부분 개정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 세 차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2004년과 2005년의 부분 개정은 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관련되는 부분 개정은 2006년에 이루어진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3차 부분 개정으로서, 교육부 고시 제2006-75호로 2006년 8월 29일에 고시되었다. 그 결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가운데 제1장의 ‘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의 제2장 ‘1. 수학’ 부분, 【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제2장 ‘1. 영어의 내용’이 부분 개정되었다(2007년 개정 교육과정 참조).

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2007~2009)

가.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개념에서 학년별 개념으로 전환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의 강화 등 획기적인 변화 및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교원 및 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애초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적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허경철 외, 2005; 박순경 외,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7).

첫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내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된 새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고시되어 200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은 9년 정도의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고시 시점으로 볼 때 10년이 지난 것이다.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이 대략 5년 주기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주기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개정 주기상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요구 및 기대가 개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 과학·역사 교육 강화 등과 같은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의 시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사회, 문화적 요구가 제기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와 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각종 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반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개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유급) 및 월반 등이 허용되지 않아 현실성이 미흡했으며, 학교별로 각 수준에 대한 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반 선택과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반영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있었다.

넷째,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학교급별 수업 시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주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는 주5일 수업제 실시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배경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수시개정 체제는 종래의 주기적 및 일시적 개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 10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2005년 2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이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³⁰⁾ 일시·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시개정 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시개정 체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지향 방향과 철학, 체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향후 우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수요자 중심, 단위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둔 개정을 도모하였다.

나.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과 구성 방침

(1) 개정 중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

30) 2005년 2월 25일에 발표한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수시 개정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지속적 개선,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의 탄력적, 체계적 반영,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구현 및 교육 수요자 만족감 제고, 질 높은 교육과정의 산출로 말미암은 교육의 질 제고를 들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이전에도 2004년(2004.11.26.)에는 특목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85호)을, 2005년(2005.12.28.)에는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5-10호)을 또한, 2006(2006.8.29.)년에는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5호)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수시개정이 이루어졌다.

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수요자 중심, 단위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둔 개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을 시점으로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일부가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운영,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 수업시수의 증감 운영 등을 도모하였다.

둘째,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발달 및 변화 등에 따라 생성되는 교육 내용의 증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및 발달,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제기된 요구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 교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는 한편,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신설과 개설을 허용하였으며,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교육 및 성장기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 과목군을 6개로 확대·조정하였다.

넷째,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둔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여 학교 교육의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대의 교육 성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의 교과별 적합성을 도모하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며, 학교급과 학년 및 각 교과 간의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 내용의 구성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수 일부를 조정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학년별 총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침에 감축 운영해야 할 특정한 영역이나 교과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축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인성교육 및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수를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감축하되, 초등학교와 고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 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의 이념 및 철학, 방향 등 기본 관점을 계승하면서 교육과정의 적용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및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시 개정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골간은 승계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전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요청되는 신교육 체제 구상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표현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이며, 이러한 역사의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1997년 12월 30일 개정·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자율

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인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과 ①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자기 주도 능력의 신장, ③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개정 중점 사항을 견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³¹⁾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목 표)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내 용)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 영)	•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제 도)	•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2) 구성 방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①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앞에서 설명한 개정 중점과 마찬가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대체로 계승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다. 추구하는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 목표

(1) 추구하는 인간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특색이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3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한 기본 방향과 관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라. 편제와 운영상의 특징

(1) 편제의 특징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며, ①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교육의 충실, ②재량 활동의 활성화, ③학습 부담의 경감과 교과 구조의 점진적 확대, ④교과 학습 내용의 적정화, ⑤통합 교과의 견지 및 내실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학교급보다는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된 교육과정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³²⁾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32) 참고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에서는 사회과의 영역 명칭을 일부 조정하였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따라 교과 명칭은 학교급 간에 일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사 교육 강화 차원에서 중등학교 사회과의 경우 ‘사회’와 ‘역사’의 두 과목으로 되어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표 1】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2) 운영상의 특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동일 기간에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①기초·기본교육의 충실과 ②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의 확보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연간 최소 기준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로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각 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배당 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의 개념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이며, 단위학교에서는 연간 법정 수업 일수를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간 시수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은 교과의 특성, 학교의 실정과 학생 실태, 계절 등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 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필요 등을 반영하여 교과 수업 시간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생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서의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였다.

(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사·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가)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적 의의를 지니는 재량 활동은 학년별로 연간 최소 68시간(1학년은 60시간 이상)으로 배당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라)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 특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 (가)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나) <삭제>³³⁾
- (다)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는 1학년은 30시간, 2, 3학년은 각각 34시간, 4, 5, 6학년은 각각 68시간으로 배당되었다. 학년별로 배당된 연간 수업 시간 수에서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에서 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더욱 질 높은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필요, 학생의 희망, 요구 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이 장은 앞서 언급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3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부분 개정한 교육과정이므로 교육부고시 제1997-15호에서 삭제된 부분은 ‘<삭제>’라고 명기한 것임.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수 요목 시기 (1946~1954)	·국민학교 교수 요목	·1946. 9. 1. 시달	·1946. 9. 1.	◦ 교수 요목 :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 - 교과(8) : 국어, 사회생활, 이과, 산수, 보건, 음악, 미술, 가사 - 교육법(1949. 12. 31.) 제1조 :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제1차 교육과정 시기 (1954~1963)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4. 4. 20. 제정 공포	·1954학년도	◦ 교육과정 : “각 학교의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편제 : 교과, 특별 활동 - 교과 수 : 8교과(국어, 산수, 사회생활, 자연, 보건, 음악, 미술, 실과)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 학년별 백분율로 표시(연간 35주 기준) - 1시간 단위 수업 : 40분
	·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과 과정'	·1955. 8. 1. 제정 공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교과 중심 교육과정 - 8교과의 '교과 과정' 제시 - 교과별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제2차 교육과정 시기 (1963~1973)	·문교부령 제11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개정 공포	·1946. 3. 1. - 1, 2학년 ·1965. 3. 1. - 3, 4학년 ·1966. 3. 1. - 5, 6학년	◦ 생활(경험) 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 :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 - 편제 :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 - 교과 수 : 8 교과(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 연간 35주 기준, 1시간의 수업 40분 단위 - 주당 수업 시간량 제시
	·문교부령 제251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69. 9. 4. 부분 개정 공포	·1970. 3. 1. 전학년 시행	◦ 국민 교육헌장 이념의 구현 - 반공·도덕, 특별 활동의 강화 : 수업 시간 증배 - 특별 활동의 내용 보완 : 학급회, 아동회, 클럽 활동
제3차 교육과정 시기 (1973~1981)	·문교부령 제310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 2. 14. 개정 공포	·1973. 3. 1. -1, 2, 3학년 -전 학년 사회과 ·1974. 3. 1. -4, 5, 6학년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헌장의 이념 구현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자아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 9교과(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 도덕 교과 신설 - 국사 교육의 강화 - 35주 기준 연간 수업 시간 수 제시 - 1시간의 수업 : 40분 또는 45분

	·문교부 고시 제424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9. 3. 1. 고시	·1979. 3. 1.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 형태로 개선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부분 개선의 필요에 대처 - 주당 수업 시간량 제시
제4차 교육과정 시기 (1981~1987)	·문교부 고시 제442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 개정 공포	·1982. 3. 1. -1, 2, 3학년 -전 학년 도덕과, 사회과 ·1983. 3. 1. -4, 5, 6학년	◦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 -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 조화 - 교육과정 :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건전한 심신의 육성 - 지력과 기술의 배양 -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교양 ◦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상 -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교과 수 : 9교과 - 통합 교과서에 의한 교과의 통합적 운영(1, 2학년) - ‘다교과 1교과서’ 체제 - 34주 기준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 제시 - 1시간의 수업 : 40분
제5차 교육과정 시기 (1987~1992)	·문교부 고시 제87-9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6. 30. 개정 고시	·1989. 3. 1. -1, 2, 3학년 ·1990. 3. 1. -4, 5, 6학년	◦ 홍익인간의 이념 구현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체제·구조의 개선 -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교육 목표, 편제, 시간 배당 - 운영 지침 : 계획, 지도, 평가, 기타 -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유의점 ◦ 통합 교육과정의 제정 - 편제 : 교과 활동, 특별 활동 - 1, 2학년 교과 : 국어, 산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5~6교과) - 3~6학년 교과 :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9교과) -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 개발, 보급 : ‘1 교과 다 교과서’ 체제 - 평가 결과 기록 방법 개선 : 1, 2학년 문장 기술

제6차 교육과정 시기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7. 9. 30. 개정 고시	·1989. 3. 1. - 1, 2학년 ·1990. 3. 1. - 3, 4학년 ·1997. 3. 1. - 5, 6학년	◦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 교육부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 시·도 :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 육성 -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개발 - 학생의 개성, 능력,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 다양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강조 - 교과서 중심→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 - 학교 재량 시간의 신설 -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의 교육과정, 교재 편찬 : 시·도에 위임
	·교육부 고시 제1995-7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95. 11. 1. 부분 개정 고시	·영어과 교육과정의 시행 - 3학년 : 1997. 3. 1. - 4학년 : 1998. 3. 1. - 5학년 : 1999. 3. 1. - 6학년 : 2000. 3. 1.	◦ 영어 교과서의 신설 - 3, 4, 5, 6학년 : 연간 최소 68시간 - 목표 : 기초적인 생활 영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 신장 - 교육 내용 :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음성 언어 교육 - 어휘 : 총 500 낱말 내외 이수 - 놀이 중심의 학습 활동 강조 - 교과서 개발 : 2종 도서(검정)
제7차 교육과정 시기 (1997~200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12. 30. 개정 고시	·2000. 3. 1. - 1, 2학년 ·2001. 3. 1. - 3, 4학년 ·2002. 3. 1. - 5, 6학년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 -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교육과정 개정 중점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 교과별 학습량 최적화, 수준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능력 배양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2006. 8. 29. 부분 개정 고시	· 영어, 수학 교육과정 시행 ·2009. 3. 1. - 1, 2학년 ·2010. 3. 1. - 3, 4학년 ·2011. 3. 1. - 5, 6학년	◦ 수준별 수업 권장, 강화 - 단계형, 심화·보충형이라는 유형 삭제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기본 학습 내용 정선 - 수준별 교육 관련 지침 대강화 - 수학, 영어 교과서 내실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7~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개정 고시	·2009. 3. 1. - 1, 2학년 ·2010. 3. 1. - 3, 4학년 ·2011. 3. 1. - 5, 6학년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 ◦ 주요 개정 내용 -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교육의 충실 - 재량 활동의 활성화 - 학습 부담의 경감과 교과 편제 구조의 점진적 확대 - 교과 학습 내용의 적정화 - 통합 교과의 견지 및 내실화 ◦ 편제상의 특징 -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으로만 운영 - 특별활동은 3, 4, 5, 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수는 월 2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보다 34시간씩 감축

참 고 문 헌

-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1차) 공청회 자료집.
-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총론 시안(2차) 공청회 자료집.
- 곽병선·강현석·김경자·김재춘·박순경·소경희·홍후조·백경선(2009). 미래형 교육과정방향 및 실행 체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곽병선·김경자·손민호 외(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곽병선·김재춘·조난심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과 목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 활동, 특별활동-. 서울: 미래엔 컬러 그룹.
-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 서울: 신생인쇄조합.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특별활동-.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 활동-.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별책 18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제 2009-41호. 별책 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 초등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12. 17.). 「2009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발표.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별책 1]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1].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특별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 제7차 교육과정 백서. 서울: 선명인쇄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3].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1].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총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2].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제8차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2009. 7. 24).

김재춘·소경희·한혜정·박소영(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Ⅲ)-정책 연구개발사업 2008-위탁-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용성·정민주·문영주 외(2009). 학교 교육과정 평가 도구의 타당화 및 평가 실행 체제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6.

박순경 외(2001)의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Ⅰ): 교육과정 문서 및 적용 지원 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순경·이광우·이미숙·정영근·민용성·이근호·김평국·이경진(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Ⅰ)-총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8-28-1.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조난심 외(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99-8.

조난심 외(2009a).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2009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외(2009b). 교육과정 자율화 현장 적용 모형 개발. 연구보고 CRC 2009-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김성열·박순경 외 16인(2009).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9). 진로교육의 재정립과 학교교육의 내실화.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자료집.

홍후조 외(2009a).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시안 개발 연구. 2009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교육과학기술부.

홍후조 외(2009b). 선진화된 학교교육과정의 실천모델연구. 교육과학기술부.

홍후조·강익수·백경선·성열관(200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Ⅱ) -교육과정 적정화 및 필수 교과 조정-. 연구보고 CRC 2008-28-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후조·김경자·장인실 외 4인(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